



2018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및 매개자 교육
결과자료집



2018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및 매개자교육 결과자료집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기획총괄: 문예진흥팀 문성진 팀장, 권신 팀장

기획운영: 문예진흥팀 문형순 차장

운영지원: 문예진흥팀 한명희, 윤동현

결과자료집 기획 및 원고: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결과자료집 디자인: 땡땡

발행일: 2018. 12. 31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전화 031-231-7237/ 팩스 031-236-0236/ 홈페이지 www.ggcf.kr

2018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및 매개자교육 결과자료집

1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1절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목표 설정	08
1.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필요성	08
2.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사업개요	11
2절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
1.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구성 요소	12
1) 교안개발의 목표 및 주요 구성 요소	12
2)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요소	14
2.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 내용	15
1) 교안개발	15
2) 매개자 교육	17

2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1절 교안개발 과정	20
2절 문화다양성 교육 교안	
1. 첫 번째 주제: 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28
2. 두 번째 주제: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50
3. 세 번째 주제: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76

3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자 교육

1절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자 교육 운영	98
1. 교육개요	98
2. 매개자 교육 실행	100
1) 사업 선정단체 교육	100
[만족도조사 결과]	109
2) 지역 언론 기자단 교육	113
3) 교안전달 교육	116
4) 학교시범 교육	117
3. 제언	121

[부록]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설문조사



1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및 매개자 교육

기획 및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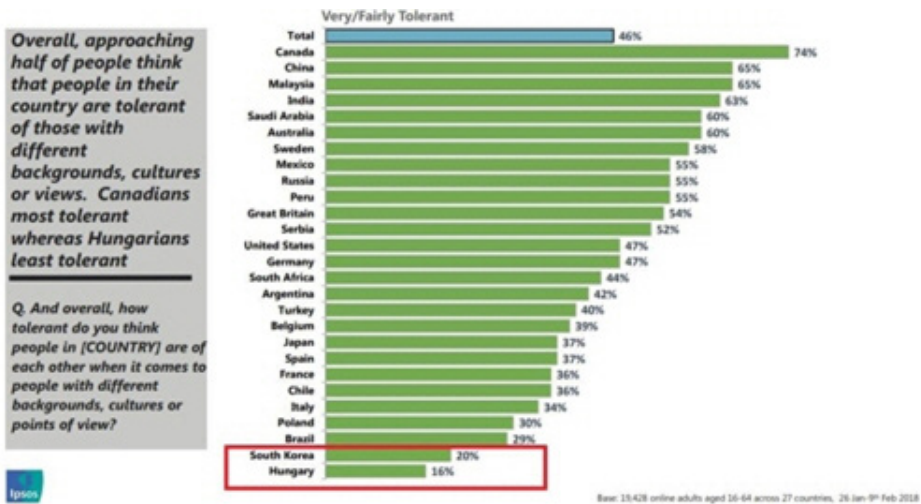
1절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목표 설정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필요성

○ 한국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수용성 증대 필요

아래 참고자료(신문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의 다양성포용정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수용성이 증대되어야 함.

(‘한국사회 다양성포용정도 세계최하위권’ 27개국중 26위. 서울경제2018.4.24)



한국인들이 문화, 종교, 정치 등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정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글로벌서베이:분열된세상’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관용도를 가늠하는 항목에서 한국은 2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한국인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관용적이나”는 물음에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부분의 최하위는 16%를 기록한 헝가리에 돌아갔다. 헝가리는 유럽 난민사태 등의 여파로 인해 국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해 우경화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반면 난민을 포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던 캐나다는 74%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65%로 뒤를 이었고, 전 세계 평균은 46%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 모리가 BBC방송의 의뢰를 받아 올래 1~2월 세계 27개국 1만9,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 대다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2%로 브라질(10%), 터키(9%), 페루·말레이시아·세르비아(각각 7%)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세계 평균은 24%다. 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88%에 달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응답자의 35%가 ‘다른 정치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장 덜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부문에서는 터키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28%로 뒤를 이었다. 세계 평균은 1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은 ‘모든 그룹을 동등하게 신뢰한다.’고 답했다.

27개국 조사 대상자의 76%는 ‘사회가 분열됐다’고 답변해 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중 세르비아에서는 응답자의 약 93%가 ‘사회가 매우 혹은 꽤 분열됐다’고 답했으며 아르헨티나(92%), 칠레(90%), 페루(90%) 등 일부 남미 국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유럽인의 66%는 사회가 10년 전보다 더 분열됐다고 답했다. 스페인(77%), 스웨덴·이탈리아·독일·영국(각각 73%)에서 이같이 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들 국가는 이민자와 현지인 사이의 긴장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65%는 ‘세계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한국(49%)은 이 문항에서도 헝가리(48%), 일본(35%)과 함께 긍정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쳤다.

출처 : 2018. 4. 24. 서울경제,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다양한 층위의 매개자에게 문화다양성 교육 진행이 필요함.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매개자의 감수성을 증진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다양한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는 것이 우선과제로 여겨짐.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2018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한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관계자(기획자, 교육강사, 보조강사 등) 및 경기문화재단 출입기자단, 지역별 다문화/세계시민/민주시민/인권교육,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매개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이를 통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활동 전개 독려

매개자 교육을 통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더불어, 다수 대중에게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교안 개발

자유학년제(중학교 1학년) 수업을 통해 학교안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 교안(3가지 주제: 문화다양성과 나, 문화다양성과 인권, 인종차별)을 개발하기로 함.

교안을 개발할 때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되,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도록 내용을 편성하기로 함. 또한, 강사의 전달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 영역에서 자신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이 일회성 수업에 그치지 않고 문화다양성 가치가 일상으로 연결되어 확산되도록 함.

○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안으로 학교 시범교육 및 교안 전달 교육(강사)

연구진에서 개발한 교안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상호문화교육강사단을 중심으로 시범교

육을 실시함.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되, 별도의 교육신청을 통해 진행함.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 시간 등은 조절하여 수업을 운영함.

연구·개발된 교안의 확산을 위하여 기존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안 전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안시연과 토론을 통해서 교안을 발전시키도록 함. 각 현장에서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험이 많은 매개자들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을 기대함.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사업 개요

1) 교안개발의 주요내용

중학교 1학년 학생 교육에 알맞는 교안을 3종(각 주제별 2차시) 개발함

- 1주제 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 2주제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 3주제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2) 매개자 문화다양성 교육의 주요내용

가. 개요

- 운영횟수 : 총 4회
- 참여인원 : 회당 20명 내외, 총원 약 100명
- 참여대상 : 선정된 단체 관계자(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등) 및 문화재단 출입기자단, 교안전달 매개자(강사) 등

나. 교육기간

- 선정단체 워크숍 2일 과정: 6월 7-8일, 경기상상캠퍼스
- 지역 언론 기자단 교육: 6월 22일, 경기문화재단
- 교안개발 전달 교육: 1회차 9월 10일, 부천 문화공간디디 / 2회차 10월 5일, 부천 문화공간 디디 / 3회차 11월 27일, 수원 청년바람지대

2절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구성 요소

1) 교안 개발의 목표 및 주요 구성 요소

가. 문화다양성교육 교안의 방향설정

- 문화다양성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안 개발
- 문화다양성교육이 소수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이며, 다양한 구성원이 같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증진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체임을 잘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교안 마련
-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문화다양성과 인권, 평등한 공존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

나. 자유학년제(중학교 1)과정에 맞춘 문화다양성교육 교안 개발의 필요성

- 문화다양성교육은 선행 실시되거나 병행되고 있는 여러 교육 즉, 인권교육·다문화교육·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등과 혼동되고 있어, 그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충돌과 경쟁을 지양하고, 여러 교육의 장단점과 차이점·공통점을 연구하여 상호 보완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개인의 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여러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여 전반적인 체계 마련이 시급함.
- 문화다양성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시민의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중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그 규모와 요구에 알맞은 교안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맞춘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방향

- 중학교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교과와 협력, 보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 제시
- 중학교 1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 놀이,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자유학기제 교육에 시범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교안 개발

라. 연구진 구성 및 교안

- 연구진 구성: 문화다양성 및 인권 관련 전문가, 다문화교육 전문가 등
- 연구진은 문화다양성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육 목표와 참여자를 규정하며, 기존 교과 내용을 분석하여 교안을 개발함.
- 6차시 교안 개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차시 설정)
- 이를 자유학기제 교육에 시범 적용하며 교안을 수정·보완함.
- 학생과 교사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안을 마련함.

마. 학교 시범 교육과 교안전달 교육

- 경기지역 각지에서 중학생 1학년 1,300여명에게 시범교육 실시함.
-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및 개별학교 섭의를 통해 학교를 선정함.
- 경기지역 관련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교안 적용 및 전달 교육을 진행함.

2)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요소

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향 및 개요

• 인지, 사회정서, 연대와 실천의 3단계 구성에 따른 교육체계

→ 문화다양성 교육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조

1. 인지 영역	2. 사회정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어떤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타인의 문화적 환경과 어떤 공통점 및 차이점을 가지는지 인식 - 개인을 이루는 문화적 속성들을 객관화시켜 봄으로써 자신과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 거시 사회적 요소가 문화다양성에 끼치는 영향 인지 -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생산 및 재생산하고 전달하는 미디어의 작용 이해 - 문화다양성 개념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개념들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및 여타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감정의 변화 경험 -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의 폭 확대 -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편견과 혐오 배격 - 특정 문화적 특성을 갖대 삼아 편협하게 타인을 재단하는 태도 지양 -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 함양 - 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는 상대적인 구성물이라는 인식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창의적 생산 활동에 기여 - 예술 및 문학 영역 등에서의 소비자, 매개자, 해석자, 전달자 모두가 다양한 문화의 표현이 만개하는 창작물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 거대 자본과 주류 미디어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창작 활동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상업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작품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실천 및 행동, 언어,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변화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이고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자세 함양 - 사회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건강한 공존에 필요한 원활한 소통 능력 함양 -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는 자세 함양 - 인권 보호와 현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인식에 기초한 실천 능력 함양
4. 문화 창조와 표현 영역	3. 실천 영역

- 일련의 과정이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워크숍 프로그램

나(편견)를 돌아보고, 상호 소통과 공존의 실천을 모색하며 공동체성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설계

- 인지적, 감각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

강의, 워크숍, 신체놀이, 토크프로그램, 공연, 기획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채택

- 직접 만남을 통한 공감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인(지역협업 경험이 있는)과의 만남과 상호소통을 통한 교류와 공감의 장 마련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개발 및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

1) 매개자 교육

○ 선정단체 교육 프로그램 구성 (2일 교육-기초과정)

	내용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자
1 일 차	9:30 ~10:00	등록	
	10:00 ~11:00	마음열기	상호인사와 소개 조원영 (쓰잘떼기 종합상사)
	11:00 ~11:20	휴식	
	11:20 ~12:50	활동	리듬워크숍 이리라 (스푸니스트)
	12:50 ~14:00	점심식사	
	14:00 ~15:30	강의	[강의]: 왜 문화다양성인가?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5:30 ~15:50	휴식	
	15:50 ~17:50	만남1	베프(Bef)- 청년 김재섭, 마음을 듣다. 김재섭 (법무법인 장강)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7:50 ~18:00	장소 이동	
	18:00 ~20:00	만남	'만나며 소통하기' 2 음식 공감 - 음식으로 만나는 문화 *네트워크 파티 상호문화교육 강사단

	내용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자
2 일 차	9:30 ~10:00	등 록	
	10:00 ~12:00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 (‘비정상’의 몸으로 예술을 한다는 것)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서지영 (장애여성공감극단 '춤추는 허리')
	12:00 ~13:30	점 심	
	13:30 ~14:30	만남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실천하기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가는 어떻게 친해졌을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예술인
	14:30 ~15:30	컨설팅1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15:30 ~15:40	휴 식	
	15:40 ~17:30	컨설팅2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
	17:30 ~18:00	마무리	소감나누기 및 정리 차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지역 언론사 기자단

	내용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자
14:00 ~ 14:40	마음열기	상호소개	차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4:40 ~ 14:50	휴식		
14:50 ~ 15:50	강의	[강의] 문화다양성, 왜 중요한가? (지역사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5:50 ~ 16:00	휴식		
16:00 ~ 18:00	강의와 소통	[베프] 문화다양성과 언론 이주민의 눈으로 언론 읽기	아웅틴튼 (이주민방송MWTV) 모니터링 참여자
18:00 ~19:00	저녁식사		

2) 교안전달 교육

○ 교안전달 교육프로그램

	내용	세부내용	강사 및 진행자
10:00 ~ 11:00	마음열기	상호소개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1:00 ~ 12:30	강의	문화다양성과 나의 관계 (강의시연 교안전달)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2:30 ~ 13:30	점 심 식 사		
13:30 ~ 15:10	강의	문화다양성과 인권 (강의시연 교안전달)	정선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5:10 ~ 15:20	휴 식		
15:20 ~ 17:00	강의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 (강의시연 교안전달)	이란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17:00 ~ 17:10	휴 식		
17:10 ~ 18:00	문화다양성 한걸음(종합토의)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2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1절 교안개발 과정

- 기간 : 2018년 7월 1일 ~ 11월 30일 (5개월)
- 교안개발 참여연구원 : 이란희, 이완, 이정은, 정선주, 사누프라자퍼티
고천성(캘리그래피), 최정규(만화)
- 교안개발 연구팀 운영 내용

구분	날짜	참석자	내용
1	180706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교안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검토 문화다양성 선언, 협약, 국내법, 관련 논문 목록 작성
2	180708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문화다양성 선언, 협약, 국내법, 관련 논문 공유 및 학습과제 지정
3	180719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문화다양성 선언, 협약, 국내법, 관련 논문 학습 3개 교안 주제 선정 및 기본안 논의 및 개별 연구과제 선정 1. 문화다양성과 개인의 관계 2. 문화다양성과 인권 3.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
4	180726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고천성, 최정규	개별 작성 교안(초안) 점검 및 보완사항 협의 삽입 만화, 캘리그래피 내용 구성 및 협의
	180801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고천성, 최정규	삽입 만화, 캘리그래피 초안 검토 및 보완사항 논의
5	180810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사회의재창조> 등 구입 자료 검토 및 분석, 토론 교안(수정안) 점검 및 보완사항 논의
6	180822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교안발표 및 보완사항 논의 (확대회의), 경기문화재단 문형순차장 참석
7	180824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고천성, 최정규 최선희, 히로미, 김세은	교안발표 및 보완사항 논의 (자문회의)

구분	날짜	참석자	내용
8	180831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이동화 아디 팀장 강의 수강_<이슬람, 팔레스타인, 난민 그리고 혐오와 무지> 교안에 적용사항 협의
9	180909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1차_교안전달교육 준비, 자료정리 및 인쇄 만화, 캘리그래피 자료 최종 점검
10	180910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1차_교안전달교육 운영
11	180912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1차_교안전달교육 평가 및 보완사항 협의
12	180918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홍성수 교수 강의 수강_<말이 칼이 될 때>
13	180927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안양부림중 교육 준비 교안 점검, 자료정리 및 인쇄
14	180928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안양부림중 9개반 시범교육
15	180929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안양부림중 교육 평가
16	181004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2차_교안전달교육 준비, 자료정리 및 인쇄
17	181005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2차_교안전달교육 운영
18	181008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2차_교안전달교육 평가 및 보완 사항 협의
19	181025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보완내용 점검, 최종 교안 확정
20	181108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사누	교안소개자료 구성안 협의
21	181114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사누, 최선희, 조원영, 최종윤	교안발표 및 보완사항 논의 (자문회의)
22	181126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사누	3차 - 교안전달교육 점검 및 준비
23	181127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3차 - 교안전달 교육 운영(수원 빛길)
24	181129	이완, 정선주, 이정은, 이란희	보고서 원고 취합 및 최종 점검





경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교안 소개

여기 소개한 교안의 PPT 자료가 필요하시면
asiasori@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 미리 읽을 자료 |

‘문화다양성’이 무엇인가요?

시공간을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는 인류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고 있다. 생태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인류에게는 문화다양성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교류·혁신·창조의 근원이다. (문화다양성선언 1조 편집)

‘문화다양성’은 유네스코가 2001년에 『문화다양성 선언』으로 그 의미를 선포하고, 2005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 협약에 110번째로 비준하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2014년, 우리 정부가 위 법률이 통과되었음을 알리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법률을 토대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여 다양한 문화 주체 간 소통을 촉진하고 문화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한류 등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주변국과 세계적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이러한 문화공존 의식은 한국인과 이민자들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약자인 여성·장애인 및 노인·청소년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름’과 ‘차이’를,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요구되어 왔다.

‘문화다양성’ 개념은 애초 어떻게 생겨나 「문화다양성선언」으로 발전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으로 진행되었을까요?

1973년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처음 소개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듯 문화다양성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러 단계를 거쳐 확장되며 199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즈음 미국이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며 ‘문화상품 또한 자유교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사회는 ‘모든 문화가 자본을 앞세운 미국 문화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 그것을 유네스코가 받아 안게 됩니다. 유네스코는 모든 개인과 나라, 민족 등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 고유한 문화를 가졌으며, 이 모든 문화를 소중히 여겨 발전하고 후세에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아 ‘문화다양성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국제사회가 서로 강제할 수 있도록 협약으로 발전시킵니다.

유네스코가 2001년에 발표한 『문화다양성선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조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혜택이다

2조 공존의 의지와 함께,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보장,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과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3조 문화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이다.

4조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이다. 소수민족과 원주민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5조 모든 이는 자기 언어로 작품을 창조·배포할 자유가 있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바탕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6조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고, 누구나 예술과 지식에 접근·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7조 문화유산은 창의성의 원천이다.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강화하여 미래에 전달해야 한다.

8조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를 인식하고, 문화상품은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이므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와 달리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맞춰 창작·공급 방식의 다양성 또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9조 국가는 의무적으로 문화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정책으로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문화산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해야 한다.

10조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불균형이 심하니,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등은 국제협력과 연대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11조 문화다양성 증진과 보호를 위해 시장기능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분야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2조 (문화다양성 선언이 힘을 갖도록 하는) 유네스코의 역할

그러나 뒤이어 제정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은 『문화다양성선언』이 담고 있는 포괄적 개념을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이 인권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가치인지, 사람과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문화적 권리를 누리며 문화적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담긴 1~7조 내용을 뺀 채 협약이 구성되었습니다. 대신 협약은, 8조~11조에 담긴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국가 주권의 일부이니 자국문화상품을 거대자본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자국문화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로 이 협약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 시민들은 자기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억누르고 사회적 통제를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은 자신을 낮추고 가족과 사회에 헌신하도록 강요받았고, 어린이 청소년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규칙에 순응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고 그에

맞는 문화를 이루도록 장려받기 보다는 아예 집에 가둬 밖으로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 속에 살아 왔습니다.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드러날 경우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치료를 강요받곤 했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소수문화, 비주류문화 또한 우리 인류가 즐기고 확산하고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문화의 주인인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문화다양성선언』이 담고 있는 지향과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교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권을 증진하며, 모든 구성원이 문화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누리는데 ‘문화다양성 개념’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그 문화가 혹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도 교육이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 출처 :

문화다양성 선언문 2005년10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07년 3월 18일 (발표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14년 11월 29일 (시행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박선희) 2009,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 학제적 조망 (조한승) 2009,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김남국) 2010.3,261-284pp,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0집 1호

2절 문화다양성 교육 교안

첫 번째 주제 : 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참여자	중고생	교육시간	90분
활동목표	문화다양성이 나의 삶,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다		
준비물	영상과 음향 시설, ppt와 영상 자료, 모둠토론형 수업 토론사례가 담긴 활동지(모둠별), 포스트잇		
교육내용	<p>1. 도입 : 문화다양성의 의미 알기 영상_ 노래 ‘같이 산다는건(솔가와이란)’ - 모든 사람, 모든 집단은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생산자임을 제시 - 문화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덜어내고 다른 사람의 삶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임을 소개하고 수업 시작</p> <p>2. 전개 ① : 문화다양성이 갖든 우리 생활 영상_ 치마교복을 입고 싶은 남학생과 문화다양성 - 포스트잇 토론 : 우리학교 남학생들이 치마교복을 원한다면? (각자 포스트잇에 의견을 써내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 영상_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어 - 수어가 ‘청각장애인의 언어’이며, 수어제공은 청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임을 소개</p> <p>3. 전개 ② : 토론과 사유를 통해 알아보는 문화다양성 이 사람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려면? - 모둠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존중방안을 찾아보도록 안내 - 토론이 ‘존중방안’을 협의하는데 집중되도록 독려 - 연결된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 - 모둠토론 종료 후 한 모둠씩 토론 내용을 소개, 다른 모둠은 청언</p> <p>4. 마무리 : 토론결과 정리 학생 발표중 바람직한 ‘존중방안’을 다시 짚어보고 빠진 내용은 더 소개하며 갈무리 - (토론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선택이 모여 문화를 형성하는 것임을 환기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기초아래 ‘개인의 노력’과 함께 ‘나라와 사회가 정책·제도·법률을 활용해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환기</p>		
유의사항	<p>- 토론·발표과정에서 학생들이 혐오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p> <p>- 소수의견도 경청하도록 유도</p>		

첫 번째 주제_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교안 설명

- 모듈수업(한 모듈에 4-5명 적당)
- 준비물 : 동영상 자료, 활동지, 포스트잇

1. 도입 : 문화다양성의 의미 알기

- 같이 산다는 건
 - 동영상 _ 솔가와이란의 노래, 같이 산다는 건
1. 노랫말을 잘 듣고 가사 중에 나오는 생물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안내합니다.
 2. 노래에 등장하는 생물 중에 ‘문화’를 가진 이는 누구인가요?
 3. 세상에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표현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3. 이 노랫말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 문화는 ‘사람’만이 창조하고 누리는 것이며
 - 모든 사람, 모든 집단은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생산자임을 제시
 - 문화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덜어내고 다른 사람의 삶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임을 소개하고 수업 시작

2. 전개 ① : 문화다양성이 깃든 우리 생활

- 동영상_ 치마교복을 입고 싶은 남학생과 문화다양성
 - 포스트잇 토론 : 우리학교 남학생들이 치마교복을 원한다면?
(각자 포스트잇에 의견을 써내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
 - 다른 문화를 보는 시선, 수용하는 과정을 느껴보도록 토론을 독려
-
- 영상_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어
 - 수어가 ‘청각장애인의 언어’이며, 수어제공은 청각장애인의 인권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노력임을 소개
 - 인권과 문화다양성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아보는 과정
 - 질문 : 수어통역사는 누구를 위해 통역한 것일까요? 수어사용자(청각장애인)
 - 수어사용자는 음성언어사용자와 그 특성에 맞춰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은 인권보장인 동시에 문화다양성 존중에 해당합니다.

3. 전개 ② : 토론과 사유를 통해 알아보는 문화다양성

- 이 사람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려면?
 - 모둠토론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존중방안을 찾아보도록 안내합니다.
 - 활동지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눠 이야기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토론이 ‘존중방안’을 협의하는데 집중되도록 독려합니다.
 -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토론 종료 후 한 모둠씩 토론 내용을 소개하고 다른 모둠은 빠진 내용을 보충하도록 유도합니다.
 - 제시된 사례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모든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제시하지 않은 다른 사례도 주변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4. 마무리 : 토론결과 정리

-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존중방안’을 다시 짚어보고 빠진 내용은 더 소개하며 갈무리 합니다.
 - (토론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선택이 모여 문화다양성을 형성하는 것임을 환기합니다.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기초아래 ‘개인의 노력’과 함께 ‘나라와 사회가 정책·제도·법률을 활용해 공동 노력’ 해야 하는 것임을 환기

첫 번째 주제_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수업후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문화다양성과 나' 교안으로 함께 공부했어요."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아니요~, 초등학교 때요~, 어제요~ 하는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또 다문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니 '문화다양성도 다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응?^^)라는 대답도 합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창조한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같이 누리자는 의미가 '문화다양성'에 담겨 있다고요.

세상에는 나라, 집단, 개인 간에 힘과 권력의 크기, 경제력 차이,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 수가 많거나 적다는 등 여러 차이가 있으며 그 때문에 문화에도 위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각 문화의 무게와 가치가 균등하므로, 우리는 서로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그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들과 '술가와 이란'의 노래 '같이 산다는건'을 들었습니다. 노래에 나오는 생물을 같이 쫓아보고 그 중에 문화를 창조하는 생물은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조금 망설이다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매미, 지렁이 다 문화가 있지 않나요? 매미에게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매미는 굼벵이로 살다가 땅에서 나와 매미가 되고 먹이도 먹고 짹짹기도 하고... (와~ 하는 친구들의 웃음). 매미의 행동은 문화가 아니라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밀양할때요~, 밀양할때요~!! 밀양할때는 가사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사람만이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을 눈치 챘나 봅니다.

그럼 지구에 사는 76억 인구 중에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학생들이 좀 헛갈려 하네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반에 있는 26명 친구들 중에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번에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6명이요~~ 그렇지요. 사람은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고 누리는 존재지요! 76억 일 때는 헛갈리던 것이 우리 반 친구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참 쉽게 답이 나옵니다.

노랫말 중에 나오는

‘같이 산다는 건 날 털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네 우주가 만나는 일’

의 의미를 문화다양성으로 해석해 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우주만큼 큰 자기만의 생각, 가치, 문화를 지녔고, 우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우주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다른 사람의 우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우주를 열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엿보기 위해 ‘치마교복 입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국 남학생들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반 남학생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같이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각자 생각을 포스트잇에 써서 내는 방식을 택했는데, 대부분이 긍정적입니다.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겠다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인권침해이다, 치마는 여자만의 옷이 아니라 남자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우리는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 취향을 존중해 준다’와 같은 의견이 있네요. ‘상관없다’라고 짧게 밝힌 학생도 많아요. 혹은 드물게 ‘싫어’하고 단호하게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동영상의 내용 때문인지 ‘남학생 다리에 난 털’에 집착하는 학생이 여럿 있었습니다. ‘상관없다’라는 답변도 꽤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니, 학생들은 ‘그건 당연히 찬성’이라고 답합니다.

다음엔 수어통역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이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어요. 학생들이 청각장애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네요. (학급에 청각장애인이 없었으므로)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 의사소통하는 문화를 가졌는데, 세상에는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면서 의사소통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장애가 있고 없다가 아니라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해 본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놀랍다!로 해석할 수 있는)하고 반응했어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문화다양성은 ‘다수자의 문화 혹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소수자의 문화 혹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노력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듬지어 앉아

1. 농구하고 싶은 지체장애인 영화씨
2. 생계가 막막한 연극배우 성주씨
3. 힌두교인이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찬드라씨

4.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광수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각각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했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을 염두에 두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 교육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이야기 보자고 했어요. 5-6명씩 모둠을 지어 앉은 학생들은 낯선 토론 주제에 조금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곧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네요. 아래는 학생들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1. 농구하고 싶은 지체장애인 영화씨

- 같이 농구한다.
- 농구골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
- 경사도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대회를 연다.
- 장애인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든다.
- 장애인 특성에 맞는 스포츠를 개발한다.
- 로봇다리를 준다.
- 장애인이 농구를 즐길 수 있게 운동 기회를 많이 만든다.

2. 생계가 막막한 연극배우 성주씨

- 공연을 보러 많이 간다.
- 관람료를 높인다.
- 응원편지와 선물을 보낸다.
- 홍보 포스터를 만들거나 SNS 등에서 같이 홍보한다.
- 연극을 보고 리뷰를 남긴다.
-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준다.
- 신입배우를 사회에서 도와준다.
-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한다.
- 광고비를 지원한다.
- 연극배우같은 예술인에게 혜택(경제적 지원)을 준다.
- 연극배우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준다.
- 나라에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한다. (관람료를 낮출 수 있게)
- 연극이 친숙하도록 연극에 관한 교육을 한다.(학교에서 보러 가거나, 연극을 같이 하거나)
- 문화의날 할인을 더 확대한다.

3. 힌두교인이라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찬드라씨

- 같이 밥 먹을 때 소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 함께 있을 때는 소고기가 안 들어간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
- 찬드라씨 앞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 소고기를 쓰지 않은 메뉴, 식당을 알려준다.
- 힌두교 신자를 위한 식당(메뉴)을 많이 만든다.
- 콩고기 요리를 개발한다.
- 다른 문화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을 이해하고 힌두교인들을 존중한다.
-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 힌두교인들의 사원을 만든다.
-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한다.
- 식당에서 다양한 언어로 재료이름을 써놓는다.
-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긍정분위기 조성

4.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광수씨

- 나부터 존중한다.
-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배려한다. 욕하지 않는다. 비하하지 않는다.
- 응원한다. 지지한다. SNS에 사례를 알린다.
- 동성결혼 찬성 청원에 의견을 덧붙인다.
-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
- 동성애(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교육한다.
- 광수씨가 이성애자가 되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동성혼을 도와야 한다.
- 존중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
- 동성애가 옳지 않은 것 같다.

더러 중학생다운 귀여운 의견도 있고 바람직한 제도를 담은 의견도 있습니다. 한 사례씩 발표하고 그에 대한 강사의 보충의견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의견과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제도화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광수씨 사례를 토론할 때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학생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말을 해도 되나요?’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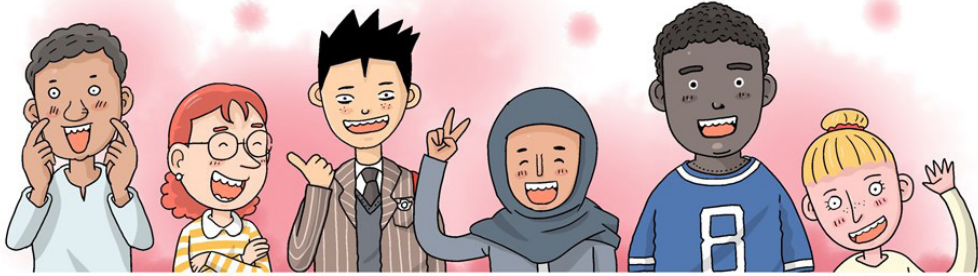
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다만 지금은 결혼제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내라고 했어요. 토론 중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주변 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셀프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와 가까운 친구가 성소수자라면 어떻게'하는 질문을 던져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기회를 만들 어봤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인권과 문화다양성이 왜 이렇게 비슷한지 질문합니다. 문화다양성선언에 나와 있듯이,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이고, '문화다양성'은 '문화'의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이제 2시간에 걸친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겠지요? 학생들이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문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모든 사람과 집단은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생산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집단 한 집단의 문화가 모여 문화다양성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동영상_술가와 이란_같이 산다는건

<https://www.youtube.com/watch?v=cB54la7OtcY>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가 만나는 일

동영상_영국 남학생의 치마교복

<https://www.youtube.com/watch?v=HPguLN9yZtU&t=5s>



우리 학교 남학생이 치마교복을 원한다면?



동영상_수어통역_최황순

<https://www.youtube.com/watch?v=GxIYnWKop1g>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같이 누리며
 모두가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제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소냐 씨는 한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기
 회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만 간신히 외우고 왔지요. 소냐 씨같은 외국
 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명국씨는
회사에 취직되어
서울로 이사 왔어요.

명국 씨는 말할 때 마다
깔깔 웃고 놀리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해 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 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씨는
“나도 농구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가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무슨 농구?”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특성에 맞춰 스포츠를 개
발하고 누리는 것은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입
니다.

영화씨가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은 약 29만명, 이 중에서 후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90%입니다. 시각장애인의 5% 정도만 점자를 읽을 수 있대요.

1년 전에 실명한 광구 씨는 지금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점자도 배우기 시작했죠. 광구씨가 자기 힘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교인인 다니엘 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직장 동료들은 자주 삼겹살로 회식을 합니다. 마지못해 같이 가서 상추만 먹고 있는 다니엘 씨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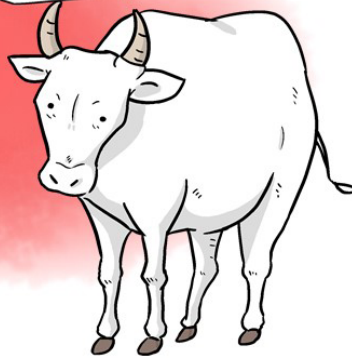




힌두교인 찬드라 씨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또 소를 만나면 두 손을 모아 경배합니다. 찬드라 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무시하는 한국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찬드라 씨가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며 소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힌두교인입니다.
소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광수 씨는 동성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배우자가 많이 아파 수술할 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자격이 없다고 다른 가족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동성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예술 장르로 등장한 그래피티! 하지만 사람들은 낙서했다며 비난하곤 합니다. 그래피티 작가인 미영 씨가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래피티 작가예요.
그래피티는 예술이
아니라 낙서라고요?



GRAFFITI



연극배우 성주 씨는 관객 앞에서 좋은 연기를 펼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연극을 포기해야 할까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성주 씨는 마음껏 연극을 하고 관객은 좋은 연극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연극배우예요.
좋은 공연을 올려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돈벌이가 안되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모든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모든 사람과 집단은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생산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집단 한 집단의 문화가 모여
문화다양성을 아름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소냐 씨는 한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만 간신히 외우고 왔지요. 소냐 씨 같은 외국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배려, 자원활동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법률·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부산에서 나와 자란 명국 씨는 회사에 취직되어 서울로 이사 왔어요. 명국 씨는 말할 때 마다 촌스럽다고 깔깔 웃고 놀리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해 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배려, 자원활동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법률·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영화씨는 “나도 농구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가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무슨 농구?” 라는 말을 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그 특성에 맞춰 스포츠를 개발하고 누리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화씨가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비언어, 자원활동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방법,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은 약 29만명,
이중에서 후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90%입니다.
시각장애인의 5% 정도만 점자를 읽을 수 있대요.

1년 전에 실명한 광구 씨는 지금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점자도 배우기 시작했죠.
광구 씨가 자기 힘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비언어, 자원활동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방법,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개인적인 배경, 자원함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법률·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유대교인인 다니엘 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직장 동료들은 자주 삼겹살로 회식을 합니다.
마지못해 같이 가서 상추만 먹고 있는
다니엘씨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유대교인이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삼겹살!!
쿨??



나는 힌두교인입니다.
소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힌두교인 찬드라 씨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또 소를 만
나면 두 손을 모아 경배합니다. 찬드라 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무시하는 한국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찬
드라 씨가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하며 소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야 할까요?

개인적인 배경, 자원함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법률·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연극배우 성주 씨는 관객 앞에서 연기를 펼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연극을 포기해야 할까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성주 씨는 마음껏 연극을 하고 관객은 좋은 연극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비영리 자원활동 등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법률, 제도를 만드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2절 문화다양성 교육 교안

두 번째 주제 :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참여자	중고생	교육시간	90분
활동목표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알고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준비물	영상과 음향 시설, 활동지(6컷 만화), ppt 파일, 동영상, 전족화(보행기 신발), 고무신, 고무신 과녁		
교육내용	<p><1교시></p> <p>1. 도입(15분): 6컷 만화 채우기(모둠활동) 6컷 만화 중 5컷 만화를 보고 마지막 컷을 상상하여 채우기 - 각 모둠별로 작성된 마지막 컷을 보고 이야기 나눈다.</p> <p>2. 전개①(15분): 문화와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체(지역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 문화 간에 우열이 없음 강조)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예시: 주식, 식사 도구, 음식)</p> <p>3. 전개②(5분): 문화다양성과 인권 사이 문화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p> <p>4. 전개 -1(10분): 문화다양성과 인권 사이 전족 이야기 - 동영상 시청: 전족 과정(전지현 주연의 영화 '설화와 비밀의 부채' 중) - 현대판 전족, 다이어트(똥똥하면 부끄러운 것), 하이힐, 성형 등</p> <p><2교시></p> <p>5. 전개 -2(20분): 문화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사이 여성할례와 히잡 이야기 - 여성할례를 피해온 난민 이야기 - 히잡을 쓴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어야 하나?</p> <p>6. 결론(5분)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기 - 문화에 대한 존중이 인권 존중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 -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자기 신체에 대해 갖는 자기결정권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p> <p>7. 활동(20분): 날아라 고무신! '신체의 자유 침해' 간접 체험해 보기 위한 활동</p>		
유의사항	문화다양성 안에서의 인권 침해 예시가 모두 여성에 관련된 문제(전족, 여성할례, 히잡)이지만 남성 중심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왔던 여성의 인권이야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이야기이기도 함을 유의하여 이야기 한다.		

두 번째 주제 :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교안 설명

- 모둠수업(한 모둠에 4-5명)
- 준비물 : 활동지(6컷 만화), ppt 파일, 동영상, 전족화(보행기 신발), 고무신, 고무신 끈

<1교시: 문화와 문화다양성 이해, 문화다양성과 인권사이>

- 문화와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 문화다양성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 문화다양성과 인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1. 6컷 만화 채우기(모둠활동)

- 6컷 만화 중 5컷 만화를 보고 마지막 컷을 상상하여 채우기
- 각 모둠별로 작성된 마지막 컷을 보고 이야기 나눕니다.
- 여성할례를 하러 가는 날의 긴장감을 표현한 만화임을 설명하고,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아이들에게 미리 여성할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수업의 어떤 내용인지 맞춰보도록 합니다).

*위 만화는 다음 기사를 참조로 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내용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30MW140715643998>

2. 문화

-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체(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임을 설명합니다.
- 사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 문화는 다르게 발전합니다.
- 문화 간에 우월이 없음을 단지 다른 문화임을 강조 합니다(문명은 과학기술의 바탕으로 한 물질적인 것으로 문명의 발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화에는 발달되었다, 덜 발달되었다, 옳고 틀림 등은 있을 수 없음을 강조).

3.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나 나타나는 현상.
- 문화적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예를 제시(인사법, 주식, 식사 도구,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 종교 등).

- 단지 어떤 나라들의 문화를 쇼핑식 교육으로 접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이 아닌 같은 종류의 문화지만 자연적 환경이나 제도, 역사적 배경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임을 이야기합니다.

4. 문화다양성과 인권 사이

- 문화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다음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족 이야기, 여성할레 이야기, 히잡 이야기)
- 모두 여성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남성 중심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왔던 여성의 인권이야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이야기이기도 함을 이야기 합니다.

5. 전족 이야기

-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하여 3~6세 때 형겁으로 묶던 풍습
- 100mm가 이상적(보행기 신발 사이즈임)
- 중국 송나라 때 시작, 명·청나라 때 일반화,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사라짐
- 전족을 하면 혼자 걸을 수 없고 담벼락이나 벽을 짚지 않고는 일어설 수도 없음.
- 무희들이 작은 발로 예쁜 춤을 추면서 유행이 되었다는 설도 있고 작은 발이 미인이라는 기준 때문에, 남성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 등등 많은 유래들이 있음
- 단지 아름다움을 위해, 남성의 만족을 위해, 전통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합당하진 생각해 봅니다.

6. 동영상 시청- 전족 과정(전지현 주연의 영화 '설화와 비밀의 부채' 중)

7. 현대판 전족 이야기

- 다이어트, 똥똥하면 부끄러운 것(?)
- 하이힐(여성의 다리를 본래보다 날씬해 보이게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긴장시켜 힘업효과도 있지만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 새끼발가락 뼈가 옆쪽으로 튀어나오는 소견막류, 발가락 감각에 이상이 오는 지간신경종 등 발 건강에 치명적)
- 성형(살이 찢기고 뼈가 깎이는 고통 후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다는 것. 결국 그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선 극복할 수 없는 현실. 남자 친구, 취업, 결혼 등등)
-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똥똥하면 부끄러운 것, 이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이힐을, 성형을 선택한다는 것은 발을 삼베로 동여매 뭉개는 전족과 다를 바가 없음.

* 이국주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어차피 똥뽕이 소리 듣는데 옷 잘 입고 센스 있다는 소리 들으려” 더 화장을 하고 꾸미고, 강연에서 “나는 예쁜 여자도 날씬한 여자도 아니지만 멋진 여자는 될 수 있다”고 말함. 이후 이 내용을 OSEN에서 ‘이국주, 그녀는 예뻐다’라고 기사화 함 (2015. 10). 여기 댓글이 600여개가 달렸는데 그중 절반은 살을 빼라는 악플이었다.
▶ 멋진 여자=날씬한 여자, 똥뽕한 여자 ≠ 멋진 여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2교시: 문화다양성과 인권 사이, 문화다양성과 자기의사결정권 사이>

- 문화다양성과 인권이 대립되는 경우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 문화다양성과 자기의사결정권이 대립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 문화다양성, 인권, 자기의사결정권이 이루는 3가지 축을 이해합니다.

1. 여성할례 이야기

- 의료적 목적 없이 성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성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치 낸 뒤 좁은 구멍만 남긴 채 봉합하는 의식(수술이 아닌 의식). 수술이 아니기에 의료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주도하는 주술사와 같은 비(非)의료인에 의해 행해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취 없이 비의료진에 행해지는 위험한 의식임을 강조.
- 아프리카 일부, 중동 일부 지역에서 행해짐
- 9초에 1명, 매일 9천 8백 명(2013, UN 통계)
- 아프리카 부족 문화, 아랍 유목 문화이며 이슬람 문화가 아님을 강조.



2. 여성할례를 피해온 난민 이야기

- 동영상 시청: EBS 글로벌 가족정착기(라이베리아에서 온 모녀)
- 여성할례가 행해지는 곳에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봅니다.

3. 히잡 이야기

- 아랍어로 '가리다'는 의미,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두건
- 이슬람 나라별로 다양한 히잡이 있음 소개.

4. 히잡을 쓴다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어야 하나?

- 문화상대주의?
- 여성과 인권에 대한 억압?
- 신앙에 따른 자기의사결정권으로 존중?

* 전체 이야기 나누기

▶ 히잡을 벗기는 것이 맞는가? 혹은 쓰게 하는 것이 맞는가?

- 히잡을 여성 억압을 기제로 판단해 벗는 것이 여성 해방 운동으로 생각하는 시각
- 히잡을 쓰는 것도 내가 믿는 종교에 따른 자기의사결정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 시각

*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 2004년 “모든 종류의 종교적 상징물을 공공 교육시설에서 착용할 수 없다”고 발표 (cf. 2011년 공공장소에서의 히잡 착용 금지법 발효). 종교적 상징물이라 함은 이슬람의 히잡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십자가, 유대교의 다윗의 별, 시크교의 터번 등을 모두 포함. 이는 프랑스의 세속주의(라이시테)에 기초를 한 금지로 “프랑스는 분할될 수 없고, 종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며,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라는 프랑스 헌법 제1조 1항에 근거를 둔. 프랑스는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의미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속주의의 연장으로 2017년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무슬림의 전신 수영복)를 입은 여성들에게 “수영장물을 더럽힌다”고 벌금 부과, 퇴장 명령을 한 바 있음.

5.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기

- 올바른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 타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함
- 그러나 무조건 이해와 수용은 X
- 인권까지 무시되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X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지양-타 문화권 사람들도 수긍할만한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
- 문화다양성 선언(유네스코, 2001) 제 4조

* 강조해야 될 부분

▶ 문화에 대한 존중이 인권 존중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

▶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자기 신체에 대해 갖는 자기결정권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

6. 올바른 문화다양성이란?(아이들과 같이 읽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이는 어떤 문화, 어떤 시대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덕적 최소한이다.”

7. 날아라, 고무신!

-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신체의 자유 침해’ 간접 체험해 보기 위한 활동
-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흘렀을 수업 분위기 반전을 위한 게임 활동
- 작은 사이즈의 고무신을 신어보는 체험을 한 후 칠판의 과녁을 향해 찌찌이 고무신 던지기
- 과녁에 던져진 고무신이 과녁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으로 인정. 던진 학생에게 어느 부분에 붙었는지 읽어보게 함

**과녁에 미리 벨크로 찌찌이 ‘보들이’가 촘촘히 붙여져 있고 고무신에 ‘찌찌이’를 붙여 바느질을 해주어야 한다. 번거롭긴 하지만 찌찌이만 붙여두면 금새 떨어지기 때문에 바느질 작업을 해 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바느질은 고무신의 외관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밑면, 측면, 앞코 부분) 아이들이 한 쪽 발에만 고무신을 발끝에 걸치듯이 신고 던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두쪽 다 고무신을 신으면 바닥에 닿은 찌찌이가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다. 반드시 한 쪽발에만 찌찌이 고무신을 신도록 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다. 대체로 학생들의 성공률은 40%정도*

두 번째 주제_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수업후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문화다양성과 나' 교안으로 함께 공부했어요."

1.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또 다른 지루한 수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듯하군요). 중학생들이 그다지 관심을 가질 주제가 아닌 '문화다양성'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조합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우선 6컷짜리 만화를 완성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쫄러 만화에 집중하네요. 모둠별로 주어진 시간에 상상이 더해집니다. 교안 개발 과정에서 '장기매매'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염려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결과는 '조혼', '강제결혼'이었어요. 그 외에 장기매매, 때를 미는 목욕 장면, 손발을 잡았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재미있는 만화 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답인가를 말하지 않고 이 만화가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이야기 중 하나의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직접 찾아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 다음은 '문화'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뭐라고 딱 표현하기 힘든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체'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독특한'이라는 부분과 '공유'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지요. 또 잠을 자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가지는 본능적인 부분으로 문화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는 문화가 됩니다. 어떤 지역은 쌀을, 어떤 지역은 빵을 주식으로 삼은 것은 식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눈이 조금 초롱초롱합니다. 아마 좀 알아듣겠는 모양입니다.. 그리곤 지역에 따라 주식이 왜 달라지는지 자연환경의 예를 들어 쌀농사와 밀농사에 적합한 환경과 기후를 설명합니다.

3. 아이들이 문화다양성의 예시 중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카레' 이야기였습니다. 식문화, 식사 도구, 인사 등의 예시가 있었지만, 한국, 일본, 인도 카레의 차이점을 이야기 한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가 봅니다. "이 중에 진짜 카레가 어떤 거예요?"라는 질문에 우물쭈물합니다. 한 학생은 "당근 우리나라 거요" 합니다. "우리 것이 최고~여!"라는 익살과 함께. 그럼 나머지 카레는 다 가짜 카레인가요? 하는 질문에 당황합니다. 우리의 카레만을 진짜 카레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카레 또한 진짜 카레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문화는 우열이 없고, 진짜와 가짜도 없으며 그 나라의 환경, 역사,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4.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다양성과 인권과의 이야기를 풀기 위해 3가지 소주제 중 하나인 '전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족의 시대와 의미,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전족이 유래하고 흔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명나라 때 어떤 무희가 작은 발로 아름다운 춤을 춰서 귀족들 사이에서 작은 발을 갖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설부터, 여

자를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남성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서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해 ‘남성들이 작은 발을 가진 여성을 좋아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여학생의 입에서 “이런 미친~”이란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 남자들 눈에 예쁘라고 발을 동여매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시선으로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서투른 항변인 듯합니다. 기형으로 뒤틀린 발을 보는 아이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신체에 대한 억압이 현대에서 다이어트로, 하이힐로, 성형으로 다시 나타나는 건 아닐까, 나의 질문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 다음 소주제는 ‘여성할레’입니다. 교안 개발 과정에서부터 전파교육 때에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달 수위’ 때문에 많은 염려를 일으켰던 부분이라 더욱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우선은 ‘할레’의 사전적인 뜻부터 설명했습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종교의식을 할레라고 하며 남학생들이 하는 포경수술의 종교적인 표현이 할레라고.... 여기저기서 킁킁 웃음이 터집니다. 이미 초등학생 고학년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불문하고 ‘포경’이라는 용어가 그다지 생소한 용어가 아닌 누구나 그게 뭔지는 아는 초당문화화(化) 되었기에 거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남성 할레는 문제가 되지 않고 ‘포경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의식적인 측면이든, 위생적인 측면에서 행해지지만 ‘여성할레’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나 중동에서 여자가 성인식이 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하나의 ‘의식(儀式)’이라고(여성할레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3단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식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춘기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더 자세한 설명은 아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일으킬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여성할레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우리족이 성인이 되기 위해 ‘번지점프’를 하듯이 여성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일부지역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성인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려했던 아이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에 전문적인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을 갖춘 곳이 아닌 주술사나 성인식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에 의해 아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성할레를 받는 도중 죽거나, 받고 나서 죽거나,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고... 한 여학생이 묻습니다. “안 받으면 되잖아요?” 성인식 문화라고 접근을 했더니 우리나라 성인식처럼 본인이 원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런 선택이 존중된다면 ‘여성할레’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인권과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말을 맺고 준비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아빠가 딸들의 여성할레를 거부해서 가족이 마을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연을. 아이들이 심각해졌습니다. 킁킁거리던 웃음소리가 끊겼고요.

‘전족’은 남성의 관점으로 작은 발을 미인이라고 규정해 여성의 발을 인위적으로 억압했다고 보지만 현재에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성할레’는 현재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

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라고, 왜 문화다양성으로 보지 않느냐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고 했던 본 강사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이 복잡해지는 표정을 짓습니다. 문화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왜 여성할레를 그 나라의 문화다양성으로 인정하면 안 될까요?”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미개해요”

6. 마지막 소주제는 ‘히잡’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히잡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아 이슬람 여성들이 몸에 두르는 쓰개, 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히잡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히잡을 쓴 여성들을 본 적이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물어봤습니다. “신기했어요”, “불편하게 보여요”, “좀 무서워요” 히잡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어쩔 이슬람 종교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이 이런 히잡을 쓰지 않으면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런 히잡 착용이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도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여성들도 있고 내 신앙에 따른 자신의 권리라고 히잡 착용을 옹호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여성들이 쓴 히잡을 벗겨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맞는 것일까, 아니면 문화의 다양성으로 존중해주어야 할까, 라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성할레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였지만 히잡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인데 이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를 경찰이 벗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부르키니가 위생상, 의사 시 위협하기 때문에 착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줍니다. 내 신념에 따라 내 신체에 대해 결정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인권과 문화다양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또다시 질문해 봤습니다. 여성할레 이야기 때 킁킁 나오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무척 심각한 표정으로 최상의 집중도를 보입니다.

7. 문화다양성과 인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든 내용이 공교롭게 모두 여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남성 중심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왔던 여성의 이야기와 여성 인권 침해 사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이야기이기도 함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8. 아이들에게 계속 던진 질문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문화다양성은 자문화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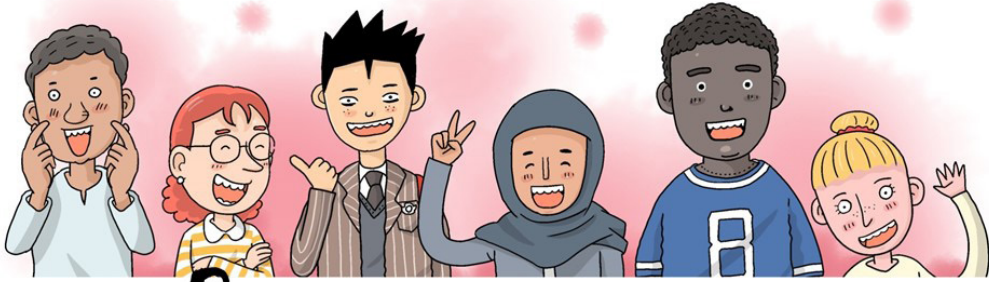
주의적 입장이 아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이해와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권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문화에 대한 존중이 인권 존중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을,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자기 신체에 대해 갖는 자기결정권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을 다시 한 번 짚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소한 전족, 여성할레, 히잡이라는 내용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만 ‘인권’이라는 개념,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결정권과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관계를 고민해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 대신 나를 뺀히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묻는 것이겠지요. 내 의견을 말해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다문화교육은 열린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고민해 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오늘 문화다양성과 인권 수업은 선생님이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화다양성과 인권, 자기결정권 이 세 가지에 대해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과 문화다양성 수업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선언(유네스코, 2001) 제 4조를 다 같이 읽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이다. 소수민족과 원주민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9. 다소 무거웠던 내용의 인권 수업이라 ‘고무신 던지기’라는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던 내용을 다루었기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즐거움을 가미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작은 고무신에 발을 구겨서(?) 신어보고 칠판에 붙인 과녁에 그 고무신을 던져 붙이면 점수를 얻는 방식이죠. 모둠별로 고무신을 1컬레씩 주고 돌아가면서 신어보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섞인 소리가 나옵니다. 안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신어요, 발에 감각이 없어요, 걷을 수가 없어요 등. 일부 발이 작은 친구는 아주 잘 맞는다며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본 게임의 의도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200mm, 220mm로 준비해간 고무신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작거나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무거운 주제로 나름 고민의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인데 과녁을 향해 고무신을 던지는 모습에서 그 무거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과녁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과녁 안에만 걸치면 점수를 주는 것으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고무신에 찌찌이를 둘러 바느질을 했습니다. 땅에 과녁을 놓고 던지는 것보다 과녁을 칠판에 붙이고 찌찌이 고무신을 던져 붙이는 게 아이들의 호응도 좋고 집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고무신에 찌찌이를 붙여 바느질할 때는 바닥뿐만 아니라 측면과 앞면까지 다 바느질 해주는 것이 훨씬 과녁에 잘 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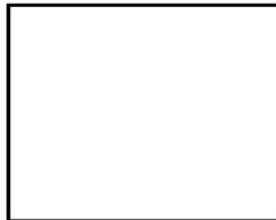
문화 다양성 그리고 인권



1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여성기자 라바스 아젠 실제 이야기

2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체(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사진=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309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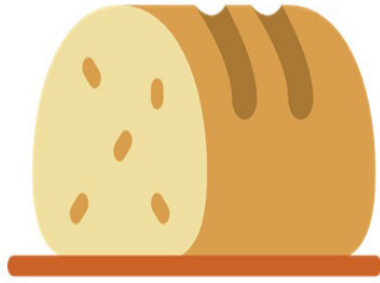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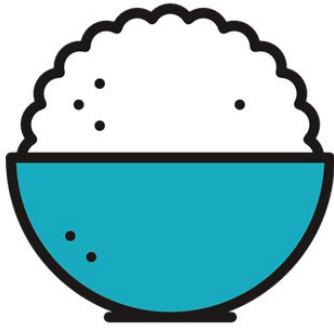
사진=아웃도어뉴스
<http://www.outdoo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9>

문화 다양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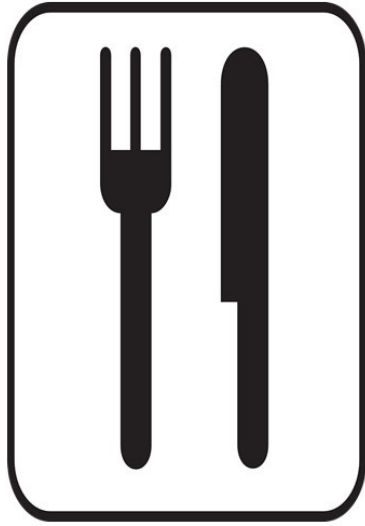
- 서로 다른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나 나타나는 현상
- 환경이 다르고, 전해 내려온 지식, 역사, 인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양식도 다름
- ☞ 다른 집단과는 다른 문화를 형성



다른 주식



다양한 식사 도구



다양한 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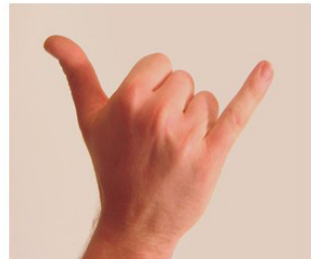


한국

일본

인도

서로 다른 인사법





문화다양성과 인권 사이

- 문화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 ☞ 전족 이야기
- ☞ 여성할례 이야기
- ☞ 히잡 이야기

9

전족 이야기

-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하여 3~6세 때 형겅으로 묶던 풍습 (100mm가 이상적)



사진= 밥 매거진 <http://www.myb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 10



사진 제공:
https://theqoo.net/index.php?mid=square&document_srl=531213096

사진 제공=트위터(동양풍 잡학보!)

현대판 전족(?)



사진=개그맨 겸 작가 헬스걸 권미진 SNS 사진캡처



사진=jyp성형외과 SNS 사진캡처

13



똥똥한 여자 ≠ 멋진 여자

멋진 여자 = 날씬한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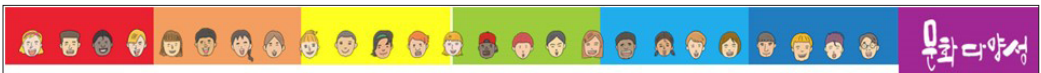
여성할례 이야기

- 의료적 목적 없이 성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성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거하는 **의식**(수술이 아닌 의식임)
- 아프리카 일부, 중동 일부 지역에서 행해짐
- 9초에 1명, 매일 9천 8백 명(2013, UN 통계)
- 아프리카 부족 문화, 아랍 유목 문화(이슬람 문화 **X**)

15



이집트 여성 할레/ 알자지라 TV 화면 캡처



히잡 이야기

- 아랍어로 '가리다'는 의미
-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두건



히잡의 종류

부르카

니캅

히잡

차도르



19



히잡을 벗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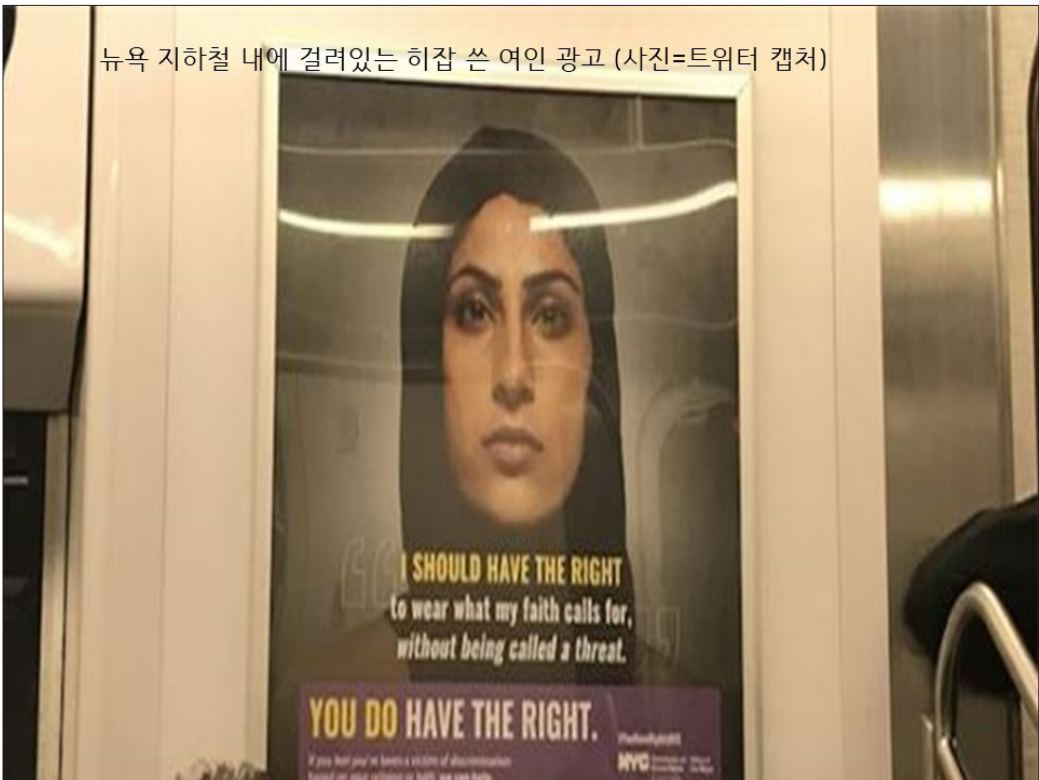


스위스에서 히잡을 벗고 휴가를 즐기는 아자데 남다리[사진=트위터 캡처]

20



뉴욕 지하철 내에 걸려있는 히잡 쓴 여인 광고 (사진=트위터 캡처)





23



히잡을 쓴다는 것은...?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
- 여성과 인권에 대한 억압?
- 신앙에 따른 자기결정권으로 존중?

24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 ☞ 타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
 - ☞ But, 무조건 이해와 수용 **X**
 - ☞ 인권까지 무시되어서는 안됨
-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지양(타 문화권 사람들도 수긍할만한 합리성)

25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문화에 대한 존중이
인권 존중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
-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자기 신체에 대해 갖는 자기결정권보다
우선되어선 안 됨

26



문화다양성 선언(유네스코, 2001)

• 4조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이다. 소수민족과 원주민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27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이는 어떤 문화, 어떤 시대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도덕적 최소한**이다.”

28

날아라, 고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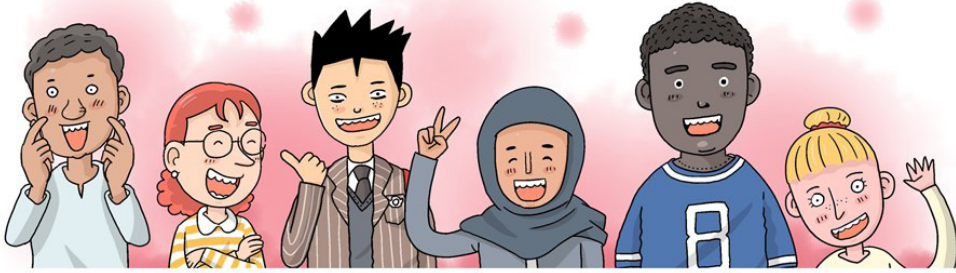
- 작은 고무신 신고 목표물을 향해 던져보기
- '신체의 자유 침해' 간접 체험해 보기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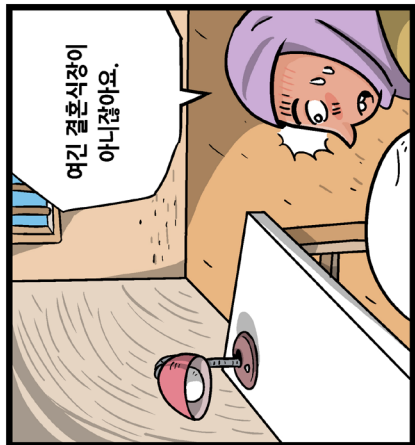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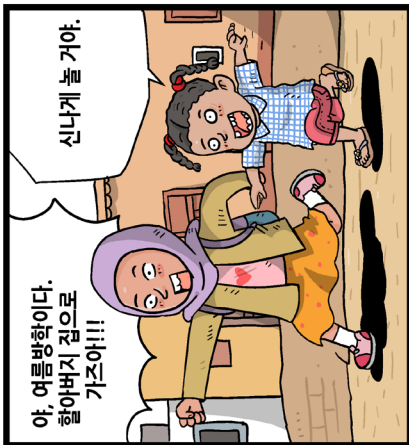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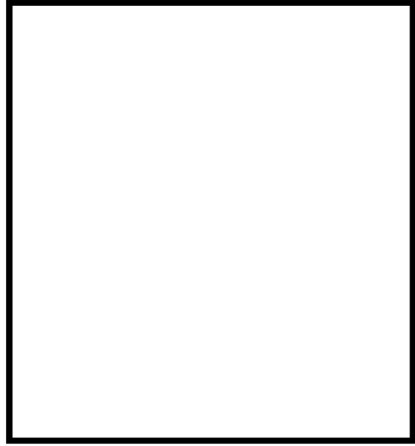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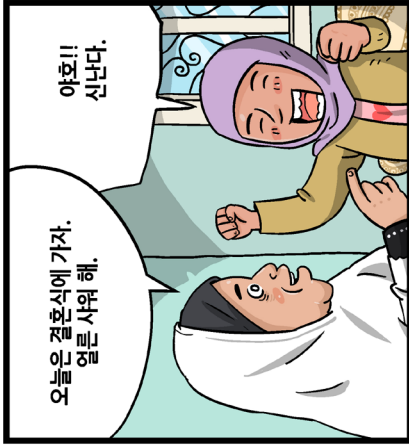
30



THANK YOU



31



2절 문화다양성 교육 교안

세 번째 주제 :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참여자	중고생	교육시간	90분
활동목표	인종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성 존중이 필요한 이유를 안다.		
준비물	영상과 음향 시설, ppt 자료, 다양한 얼굴그림과 모듬별 상자, 인종차별 기사(모듬별 다른 사례) (다양한 얼굴그림은 asiasori@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교육내용	<p><1교시> 내가 인종차별을 한다고?</p> <p>1. 도입 : 내 안의 편견 활동1) 영상‘나에게 두 번째 생이 시작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 상자 안의 얼굴을 선택하고 원하는 표정 등을 그리기 - 선택할 수 없었던 피부색과 외모에 대해 불편한 마음은 없었는지 불편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p> <p>2. 전개1 : 인종차별 사례 활동2) 차별사례 영상 뉴스 만들기‘도전~ 60초!’ - 차별기사를 보고 모듬별로 60초로 표현</p> <p><2교시> 변화하는 차별과 다양성존중이 필요한 이유</p> <p>3. 전개2 :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제인엘리엇의‘푸른 눈, 갈색 눈’차별 실험 - 차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실험 사례</p> <p>4. 전개3 : 변신하는 인종차별 ① 인종주의에서 문화적 인종주의로 ② 변신 과정의 예: 가짜정부가 난민반대의 이유가 된 경우 -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_‘이슬람을 얼마큼 아십니까? 전단지’ - 세계 난민정책을 되돌아보게 한 ‘3세 난민 쿠르디 사진’ - 남의 일이 아닌 ‘제주에 들어온 500여명의 예멘난민’ - 제주 예멘난민과 마주한 사람들의 엇갈린 의견</p> <p>5. 마무리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자세 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19가지 차별사례 ② 다양성이 존중의 좋은 예) 피부색크레파스 ③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의 시작</p>		
유의사항	- 활동1) 원치 않는 얼굴 모습이라도 바꾸어 주거나 서로 바꾸지 않도록 한다. - 활동2) 가능하면 모든 모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세 번째 주제 :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교안 설명

- 모듈수업(한 모듈에 6명 정도)
- 준비물 : 다양한 피부색의 얼굴 그림
(asiasori@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그림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인종차별기사(모듈별), 피부색크레파스

<1교시: 내가 인종차별을 한다고?>

1. 내 안의 편견

- 활동1) 나에게 두 번째 생이 시작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관련영상 : tvN드라마 ‘도깨비’ 16회)
- 상자에 들어있는 그림 중 한 장씩의 얼굴 그림을 선택합니다.
- 자신이 원하는 표정을 그려 넣습니다.
- 각자의 얼굴이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이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해 봅니다.
- 이 활동은 선택할 수 없는 외모와 관련한 각자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무의식중에 백인을 선호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2. 인종차별 사례 알아보기

- 활동2) ‘도전~ 60초!’ 영상뉴스 만들기
 - o 모듈별로 각각의 차별 사례를 살펴봅니다.
 - o 두 번째 생의 자신과 어울리는 배역을 정합니다.
(역할 예: 기사 속 인물, 주변인, 리포터 등)
 - o 기사내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발표시간 60초 제한)

(차별기사) 1. 인도인 출입금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4507&ref=A>

2. 스타벅스컵 찢어진 눈

<http://news.donga.com/3/all/20120212/43987371/1>

3. 외국인 전용 목욕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1601071227072002>

4. 흑형...한국에서 듣기 가장 기분 나쁜 말

<http://star.mk.co.kr/new/view.php?mc=ST&year=2017&no=858004>

5. 판타지아 친구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68050>

o 모듬원 전체가 참여합니다.

<2교시: 변화하는 차별과 다양성 존중이 필요한 이유>

3.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제인엘리엇의 차별 실험 이야기
- 활동3) 차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스티커 활용도 좋음)
- 차별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사례
(인종과 두개골의 관계를 논증한 1856년의 도표)

흑인의 두개골이 침팬지와 유사함을 보여주며 백인이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인종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열을 가리기 위해 인종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기 위해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변신의 귀재 인종차별

- 영화 엑스맨의 등장인물 미스틱(변신의 능력을 갖고 있음. 순식간에 원하는 캐릭터로 변신하는 인물)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차별 (관련영상 : 영화 엑스맨3)
- 피부색과 인종의 구분에 의한 인종주의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훨씬 다양하고 교묘해진 문화적인종주의에 의한 차별로 변화

* 변신 과정의 예) 가짜정보가 난민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경우

사건1)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 ‘이슬람을 얼마큼 아십니까? 전단지’

전단지 내용 :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이므로 IS와 같은 일부 테러 단체로 인해 무슬림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슬람경전인 꾸란에는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꾸란4:34’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꾸란8:12’ 등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실로 무서운 종교입니다.

사실 확인 내용 : 꾸란 구절과 비교 확인해 보니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 하였으며, 전단지의 꾸란 4장 34절의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구절에 상응하는 꾸란의 내용은 ‘...가볍게 때려줄지라.’입니다. 꾸란 해설에 가장 훌륭한 지식을 지녔다고 일컬어지는 이븐압바스는 시와크(칫솔용으로 쓰는 김지손가락만한 나뭇가지) 나 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폭력이라 할 수 없는 심리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그런 때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건2) 세계를 침묵하게 한 한 장의 사진 ‘시리아 내전을 피해 이주하던 난민선 전복으로 익사한 꼬마난민 쿠르디’
쿠르디 사진으로 인해 거꾸로 가던 유럽의 난민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한 난민에 대해 온정적인 입장입니다.

사건3) 남의 일이 아닌 ‘제주에 들어온 500여명의 예멘난민’

< 예멘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갈라진 의견 >

의견1 “난민 정착 지원에 쓰일 비용도 살게 된다면 부족한 일자리도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슬람교인인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니 안전도 걱정입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난민이 오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무슬림 남자 난민은 무조건 추방해야 합니다..”

의견2 “국민이나 난민이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1992년에 난민의 안전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의무를 다한다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평균 난민 인정률이 20%인데 비해 한국은 4%정도입니다.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당당하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슬람 전단지와 같은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어떤 문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판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 평판에 의해 대상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차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5.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자세

- 다양성존중이 필요한 이유-우리 사회의 구성원들과 19가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사유
- 다양성 존중의 예: 피부색 크레파스
-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의 시작
- 유네스코협약 전문 ④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울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세 번째 주제_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수업후기

인종차별을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1. 나에게 다음 생이 시작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의 다음 생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으로 현재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사건을 경험해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할 수도 서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비록 종이그림이지만 자신의 다음 생이라고 하니 뽑기를 살짝 망설이기도 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뽑은 모습이 못마땅한 반응도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현재의 성별과 달라서 난감해 하는 사람, 친구의 머리가 민머리라서 킬킬거리고 웃는 사람, 피부색 또는 머리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변화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뽑은 얼굴에 눈코입을 그리고 꾸며 줍니다. 장난스런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모습이라 그런지 흥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민머리가 긴 머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 남자였는데 여자의 모습으로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턱을 깎아 가름하게 얼굴형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그림이지만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니 최대한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게 재미 있습니다.. 다만 손대지 못한 유일한 부분은 피부색뿐입니다.

“이 모습으로 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길지 상상이 되나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짜증나요.” “이런 모습 싫어요.” “저는 좋은데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말을 감춥니다.

분명하게 들었지만, “다시 이야기 해 줄래요?” 아니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애는 인종차별 당할 것 같아요.”였거든요. 인권이 주제인 만큼 표현이 문제가 될까 조심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2.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사례를 살펴봅니다.

모둠별로 각 기사를 뉴스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다음 생의 모습으로 역할을 정합니다.

원하는 역이 아니지만 자신의 모습 때문에 차별하는 사람이 되기도 차별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컵에 그린 황인종을 비하하는 ‘찢어진 눈’ 사건 재연에 흑인이 황인을 차별하는 상황극이 연출됐습니다. 흑인에게 차별받는 황인이 이해가 안가는 모양입니다. 상황극에서 매장 종업원이 흑인인 것을 알아챈 한 학생이 “뭐야, 재는 흑인이잖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흑인에게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더 못마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흑인보다 황인이 더 심한 인종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이없어 하기도 합니다.

3. 차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1967년 미국, 900여명의 백인만 사는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한 실험입니다.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 실험을 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학생들을 푸른 눈 분단과 갈색 눈 분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갈색 눈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갈색 눈 분단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학생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푸른 눈 그룹을 차별하는 부분은 씩 웃으며 재밌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등교할 때,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등교한 친구에게 이름이 아닌 ‘야, 푸른 눈-’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는 온 교실이 침묵합니다. 푸른 눈 분단에서는 비록 직접 겪어보는 차별은 아니지만 부당함에 어이없어하는 표정도 보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작은 실수에 “어련하시겠어, 선생님도 푸른 눈인데”라는 갈색 눈 학생의 말로 차별은 완성됩니다.

실제로 18,19세기의 과학자들 중에서는 흑인이 백인에게 지배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실험에서 찾았습니다. 두개골에 납탄환을 채워 흑인과 백인 중 백인의 두개골에 탄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용적률 실험으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는 입증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자는 남자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입증해 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은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우열을 가리기 위해 인종이라는 개념을 동원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하기 위해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입증 방법은 어느 순간 스르륵 사라지고 말았다는데요. 이유는 황인의 두개골에 실험을 해 봤더니 백인보다 탄환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학생들은 깔깔거리고 통쾌해 합니다. “사이다네 사이다~”

4. 과거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이 문화적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로 변신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영화 엑스맨의 등장인물 미스틱의 변신 영상을 봅니다.

차별도 미스틱과 같이 변신의 귀재입니다.

과거에는 피부색과 인종으로 차별을 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무식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교묘히 혐오하고 증오합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차별로 변신하는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전단지로 받은 이슬람교 평판입니다.

[IS와 같은 일부 이슬람단체로 인해 모든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꾸란을 보면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4장34절’,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8장12절, 47장4절’ 등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란을 배우는 무슬림들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슬람은 위험한 종교입니다. 속지마십시오.] 라는 내용의 전단지입니다.

직접 확인 해 봤더니 꾸란 4장34절 내용은 ‘여자가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할 경우에 충고를 하고 둘째로는 함께 잠자리를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줄 것이 라.’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꾸란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이븐압바스’ 선생에 의하면 때리는 도구인 시와크는 10cm 가량의 나무치술입니다. 화가 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시와크로 툭 툭 치는 정도의 때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여자만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남자에게 순종해야한다거나 (가볍게든 무겁게든) 여성을 때리라’고 주장한다면, 불평등할 뿐 아니라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꾸란이 쓰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꾸란이 나 성경에 적힌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요즘 시대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또 학생들에게 전단지를 채운 내용 대부분이 실제 꾸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가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평판이 사실이라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확인을 안했더라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주민 중에는 물론이고 한국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한국 등 무슬림 친구들이 있고, 한국에도 10개가 넘는 큰 이슬람 예배당과 작은 교회들도 있는걸요.”

두 번째 사건,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 떠난 난민선이 전복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배를 탔던 3살짜리 꼬마의 시신이 터키의 한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유럽 연합국들은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유럽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난민과 이민자 정책을 더 강화해서 비유럽 국가 출신의 난민.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막기 바빴기 때문이지요.

“난민이란 자기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삶과 죽음의 길에서 난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럽처럼 말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해요.”

“네, 유럽도 이 사건 이후로 난민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한국인들도 사람이라면 당연한 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잖아요.”

세 번째 사건, 한국의 제주에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난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도 생겼습니다. ‘나라의 세금이 쓰일 것이

고, 우리 일자리도 부족한데 취업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 더군다나 난민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성인 남자들이잖아요. 무슬림 남자들은 내 가족과 나의 안전을 위협할거예요. 예멘 난민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추방해야 해요.’라는 의견과 ‘인도적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된 나라로 국제적 입장도 있습니다. 난민 심사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합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가지 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제발 좀 추방해 주세요 쪽으로 기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평판이었지요. 그런데 관련된 일이 생기자 별 관심이 없던 그 평판의 기억이 마치 사실처럼 여겨지고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차별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슬람문화에 대한 가짜뉴스가 차별로 변신 한 것이지요.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를 가짜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가짜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요.”

“페북에서요.”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다 보니 웃기게도 사실인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어이없어하는 반응.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뉴스보다 많이 본다고 합니다. 대분의 정보를 SNS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이 가짜뉴스나 거짓정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미디어 교육이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5.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난민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장애유무, 나이, 직업, 출신지, 외모, 학력, 인종, 성정체성 등.....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는 것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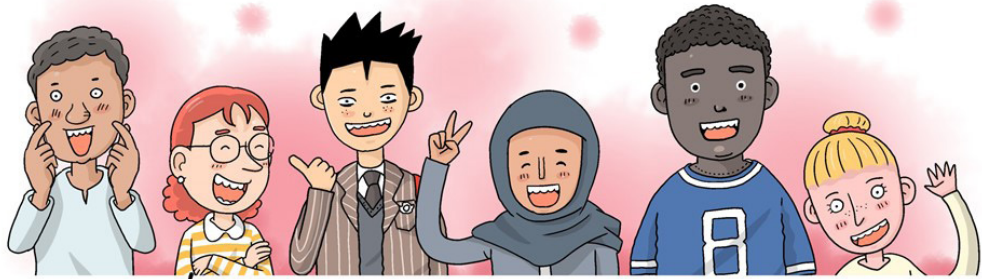
“그 사람들의 문화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니까 존중해야지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19가지 상담 사례를 보면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열등한 것과 우월한 것으로 구분하고 나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고친 유네스코 협약 전문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 합니다.

“갈등과 차별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므로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심을 곳도 우리 마음속이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염원도 있겠지만, 끝날 시간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우렁칩니다.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1

나에게 두 번째 생이 시작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출처 : tvn 드라마 '도깨비'



차별사례 영상 뉴스

도전 ~ 60초!

- 모둠 별로 각각의 차별 사례를 살펴본다.
- 기사내용을 말, 몸짓으로 표현한다. (60초)
- 모둠원 전체가 참여한다.
(역할-주인공, 주변인, 리포터 등)



차별사례 영상 뉴스

- 스타벅스
- 인도인출입금지
- 흑형
- 판타지아 친구들
- 외국인 전용 목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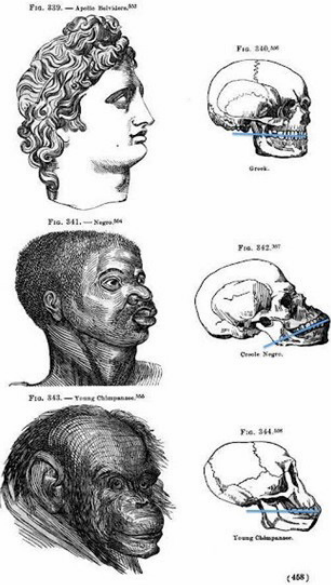
차별 실험 이야기



1968년, 미국
아이오와주 라이스빌

교사 제인 엘리엇이
초등 3학년 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푸른 눈, 갈색 눈 / 윌리엄피터스 지음)



인종과 두개골의
관계를 논증한 도표

흑인의 두개골이
침팬지와 유사함을
보여주며 백인이
우월함을 드러낸다.

(1856년 출간된 '인종'에 실린 삽화)



변신의 귀재



이슬람교(무슬림)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도 매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저행되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이므로 그런 일부 테러 단체(IS)로 인해 이슬람 전체를 평가해선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경전과 율법은 다종교인들과의 평화 공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헌신된 테러범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테러범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참 무슬림들이라고 자처하며 모든 무슬림들이 자신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공평정수와 레스킵 혹은 이슬람 사원의 설교를 통해 공개적으로 테러를 부추기고 서양 문화의 파괴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헤이드의 '입술과 나리씨'라는 대악 교수는 아랍어 TV 설교를 통해 '동감하고 헌신된 무슬림 청년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최소한 미국인 33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성공하면 그들의 통곡의 외침이 우리의 진정한 죽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슬람교(무슬림)의 경전 꾸란(코란)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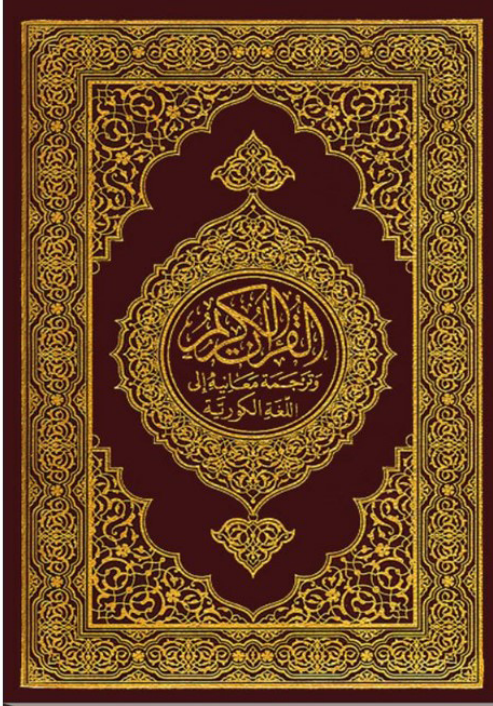
- 노예의 아내는 때려도 된다 (꾸란 4:34)
-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꾸란 9:11)
-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죽을 때에 죽여라 (꾸란 8:12, 47:4)
- 알라신을 위하여 죽이고 순교하라 (꾸란 9:5)
- 이슬람을 간파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꾸란 3:26, 3:54, 9:3, 16:106, 40:28)
- 니의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자들은 어디서 발견되든지 죽여라 (꾸란 4:89)
-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워 니의가 얼마나 안전하기를 보여 주라 (꾸란 9:123)
- 불신자들을 친구로 삼는 위선자들은 지옥의 맨 하층으로 내려간다 (꾸란 4:144)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범정에 채울 필요도 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때려 죽여라, 니가 풀면 그 피는 알라를 기쁘게 하고, 알라는 니를 충성되어 여기서 니를 위해 낙원에 아름다운 처녀를 예비해 두리라.

(이란의 신문 기사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부디 가까운 교외 나가셔서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길 기원합니다.



القرآن الكريم
وترجمة معانيه إلى
اللغة الكورية

Translation of the Meanings of
THE NOBLE QURAN
in the Korean Language



다음은 이슬람교(무슬림)의 경전 꾸란(코란)의 일부입니다.

-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꾸란 4:34)
-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꾸란 9:11)
-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꾸란 8:12, 47:4)
- 알라신을 위하여 죽이고 순교하라 (꾸란 9:5)
-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꾸란 3:26, 3:54, 9:3, 16:106, 40:28)
- 너희에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자들은 어디서 발견되든지 죽여라 (꾸란 4:89)
-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워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 주어라 (꾸란 9:123)
- 불신자들을 친구로 삼는 위선자들은 지옥의 맨 하층으로 내려간다 (꾸란 4:144)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는 법정에 세울 필요도 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때려 죽여라. 너가 흘린 그 피는 알라를 기쁘시게 하고, 알라는 너를 충성되이 여기서 너를 위해 낙원에 아름다운 처녀를 예비해 두리라.

〈이란의 신문 기사 내용 중에서〉



지옥으로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 서는 그런일이 쉬움이라

31. 금지된 가장 가중한 것을 너희가 피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구하사 천국에 이르는 자비의 문으로 너희를 들게 하리라

32.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많이 받은 자가 있나니 시기하지 말라 남성은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몫이 있고 여성도 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몫이 있나니 서로를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께 구원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33. 부모와 형제가 남긴 재산을 각자와¹⁾ 너희가 함께 한 그들에게 몫을 계정하였나니²⁾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34.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¹⁾ 이

ذَلِكَ عَلَى اللَّهِ يَسِيرًا ۝

إِنْ كُنْتُمْ لَا تَرْضَوْنَ النِّكَاحَ فَإِنْ كَانَ فِي قُلُوبِكُمْ كَيْفٌ فَقَدْ خَلَقْنَا مِنْكُمْ نَفْسًا ۝

وَلَا تَتَّبِعُوا مَا أَفْسَلَ اللَّهُ بِهِ بَعْضَكُمْ عَلَى بَعْضٍ لِلرِّجَالِ نَصِيبٌ مِمَّا كَسَبُوا وَلِلنِّسَاءِ نَصِيبٌ مِمَّا كَسَبْنَ وَسَأَلُوا اللَّهَ مِنْ فَضْلِهِ إِنَّ اللَّهَ كَانَ عَلِيمًا حَكِيمًا ۝

وَالَّذِينَ جَاءُوا مِنْكُمْ عَلَى الْوَثَاقَةِ وَالرِّقَابِ وَالَّذِينَ كَفَرُوا ثُمَّ نَدَابُوا فَسَاءَ لِمُتَّكِلِي آلِهِمْ فَاتَّخِذُوا مِنْ مَوَالِكُمْ نَفْسًا وَاللَّهُ كَانَ عَلَى كُلِّ شَيْءٍ شَهِيدًا ۝

الرِّجَالُ كُفُولُونَ عَلَى النِّسَاءِ بِمَا كَسَبَ اللَّهُ بَعْضُهُمْ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시²⁾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³⁾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주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فَوَاللَّهِ كَانَتْ مِنْكُمْ إِفْكٌ كَثِيرٌ مِمَّا كُنْتُمْ تُخْفُونَ مِنَ اللَّهِ وَأُولَئِكَ هُمُ الْمُفْسِدُونَ ۝
فَوَاللَّهِ كَانَتْ مِنْكُمْ إِفْكٌ كَثِيرٌ مِمَّا كُنْتُمْ تُخْفُونَ مِنَ اللَّهِ وَأُولَئِكَ هُمُ الْمُفْسِدُونَ ۝
فَوَاللَّهِ كَانَتْ مِنْكُمْ إِفْكٌ كَثِيرٌ مِمَّا كُنْتُمْ تُخْفُونَ مِنَ اللَّهِ وَأُولَئِكَ هُمُ الْمُفْسِدُونَ ۝
فَوَاللَّهِ كَانَتْ مِنْكُمْ إِفْكٌ كَثِيرٌ مِمَّا كُنْتُمْ تُخْفُونَ مِنَ اللَّهِ وَأُولَئِكَ هُمُ الْمُفْسِدُونَ ۝



향나무 칫솔 세와크

출처 : 네이버블로그 rainbowfish





출처 뉴스스



HOOC TOPIC

“장난감 주세요” 난민 환영하는 독일 아이

H By 김현경 HOOC Editor

기사작성 : 2015. 09. 09 at 04:53 pm



Photo by Osman Helici

[HOOC] 시리아 난민을 환영하는 독일 아이의 모습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뮌헨 난민 돕기’(Muschelschloss) 트위터에는 뮌헨 기차역에서 곧 도착할 난민들을 기다리는 한 꼬마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사진 속의 꼬마는 영어로 ‘환영합니다’(Welcome)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꼬마의 앞에는 작은 카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카트에는 꼬마가 난민 어린이들에게 주고 싶다고 가져온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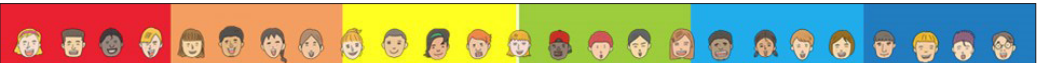
2018.06.18



제주 예멘 난민 '엇갈린 시선'

jtbc 뉴스룸

제주에 온 예멘 난민 500여명...엇갈린 시선



 성별	 종교	 장애유무	 나이	 사회적신분(직업)
 출신지역	 출신국	다양한 사람들		 민족
 혼인여부	 임신출산	 학력	 가족형태 or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or 정치적인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

국가인권위원회 19가지 차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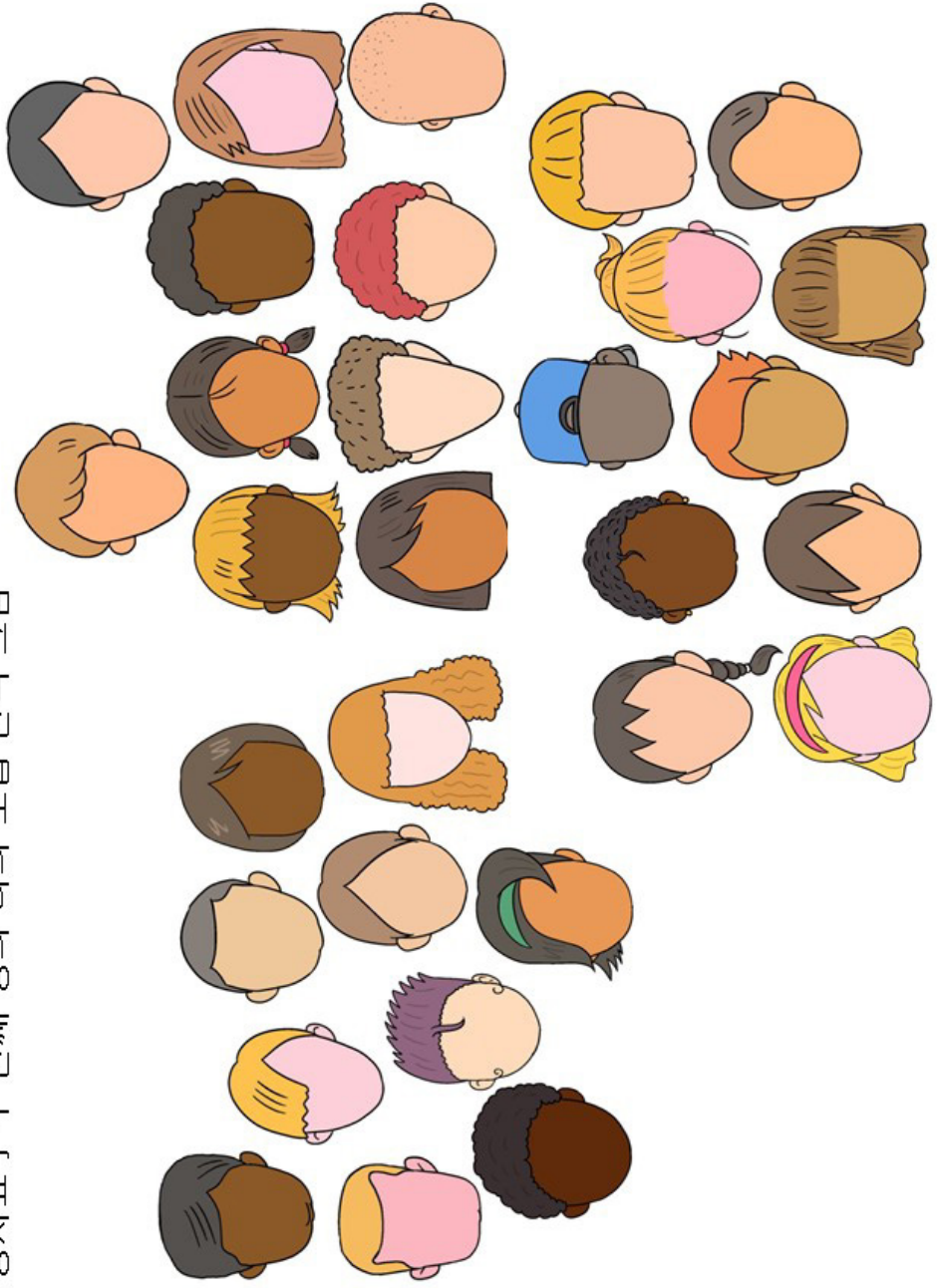
출처 www.lakeshorelearning.com



갈등과 차별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므로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심을 곳도
우리 마음속이다

유네스코 현장 전문 중

[활동자료] 두 번째 생의 나의 모습 선택 그림





3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자 교육



1절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자 교육 운영

1. 교육 개요

1. 매개자 교육 개요

○ 매개자 교육은 경기문화재단 ‘2018 일곱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 선정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워크숍, 소통과 나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 매개자 교육의 주요 특징은 문화다양성을 ‘가치’로 인식하고 담당자 스스로 그 뜻에 공감하여 실제 현장 활동에 문화다양성 개념을 바르게 이식하고 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음.

○ 교육참여자들은 관련 사업의 담당자이기도 하고, 지역 언론 기자단, 교육을 실천하는 활동가이기도 함. 미디어를 통한 가치 확산이 중요한 측면에서 지역 언론 기자단을 대상으로도 매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개발된 교안을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에 활용하도록 교안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음.

○ 지식적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참여자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우치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공유하도록 함.

○ 참여자들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할 때 생소하게 받아들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만남을 이어가며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이라고 이름 붙임.

[표] 문화다양성 매개자 교육 개요				
구분	세부내용			
교육명	‘만만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 가치로서 쉽게 여겨지기를 바람.			
	-만남과 만남으로 이어지는 교육			
교육대상	-경기문화재단 ‘2018 일곱빛깔, 일곱 개의 감각나누기’ 선정단체 관계자			
	-지역언론 기자단			
	-교육 활동가(교안전달교육)			
교육일정 및 장소	회차	일정	참여자	장소
	1	6월 7일-8일(2일)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나누기 사업 관계자 (담당자, 교육강사, 보조강사 등)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2	6월 22일	지역 언론 기자단	수원, 경기문화재단
	3	9월 10일	교육활동가	부천, 문화공간 디디
	4	10월 5일	교육활동가	부천, 문화공간 디디
	5	11월 27일	교육활동가	수원, 청년바람지대

2. 매개자 교육 추진과정

(1) 선정단체 교육

○ 기획단계에서 운영위원회와 강사진 회의를 통하여 교육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 과정 중에 내용을 수정하며 보완함.

○ ‘일곱빛깔, 일곱 개의 감각나누기’ 사업 선정 단체 관계자(담당자, 교육강사, 보조강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함.

○ 교육과정 중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소통, 공감 뿐 아니라,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함. 교육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2) 교안전달 교육

- 개발된 교안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3차례 진행함.
- 기본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를 돕는 강의를 진행하고, 세가지 주제(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교안을 시연을 통해 전달함.
- 교육활동가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 시연에 참여한 후, 각 주제별로 팀별 토의를 거쳐 교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교안을 공유함.

2. 매개자 교육 실행

1)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 선정단체 교육

(1) 1일차

- 마음열기
 -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들간에 상호 소개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 교육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전달함.
- 리듬워크숍
 - 스푸니스트와 함께 하는 리듬수업
 - 리듬수업과 손가락 연주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자기를 표현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함.
- 강의-왜 문화다양성인가
 - 본 교육의 화두인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의 주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 이해를 골자로 함.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업의 목적이 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있는지 참여자 스스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어렵게 생각했던 문화다양성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김.
- [만남1] 베프(Bef) 청년 김재섭, 마음을 듣다.
 - 이주배경청소년입장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나누는 시간을 마련함.
 -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주로 청소년들을 만나는 참여자들과, ‘이주’를 주제로 하

는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함.

-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만남2] 음식공감: 음식으로 만나는 이웃나라 문화

- 이주민 강사들과 함께 이웃나라 음식을 함께 만들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식탁에서 나누어 먹는 단계까지 고루 참여하면서 낯선 문화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 음식을 매개로 하여 이웃나라 문화와 이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함.
- 참여자간에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함.

(2) 2일차

○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 - ‘비정상’의 몸으로 예술을 한다는 것‘

-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의 이야기: 장애여성의 삶과 인권의 현실을 예술로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상성과 규범, 전문가주의에 대해 깨는 계기를 마련함.
- 예술은 곧 삶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함.
-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문화예술교육강사로 활동하는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시간

○ [만남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가는 어떻게 친해졌을까?

- 교육을 포함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각 다른 지역의 현장에서 활동할 참여자들에게 사례를 제시함.
- 지역사회에 예술인이 결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전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나눔.
- 지역주민들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함께 한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를 전달함.

○ 전체 컨설팅

-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의 컨설턴트들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 염두해야 할 사항을 전체 컨설팅을 통해 전달함.
- 전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 소통함.

○ 개별 컨설팅

- 개별 단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

○ 소감나누기 및 정리

- 교육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며 각자 느낀 바를 나누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6/7~8 문화다양성교육(선정단체)



참가자 등록



참가자 등록



마음열기



마음열기



마음열기



마음열기



리듬 워크숍



리듬 워크숍



리듬 워크숍



리듬 워크숍



점심식사



점심식사



강의 - 왜 문화다양성인가



강의 - 왜 문화다양성인가



강의 - 왜 문화다양성인가



만남1 - 토크쇼[베스트 프렌드]



만남1 - 토크쇼[베스트 프렌드]



만남1 - 토크쇼[베스트 프렌드]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만남2 - 음식공감 & 네트워크 파티



1일차 단체 사진



만남3 - 장애, 예술과 만나다



만남3 - 장애, 예술과 만나다



만남3 - 장애, 예술과 만나다



만남3 - 장애, 예술과 만나다



만남4 -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만남4 -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종합 컨설팅



종합 컨설팅



개별 컨설팅



개별 컨설팅



개별 컨설팅



개별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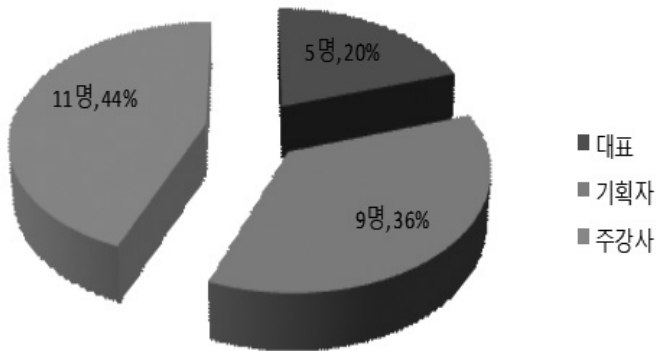
개별 컨설팅



2일차 단체사진

선정단체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1. 귀하가 본 지원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전체 응답자 20명 중, 주강사를 맡은 사람이 전체의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획자(9명), 대표(5명)순이었다. 대표이면서 주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4명, 대표이면서 기획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1명이었다.

2. 귀하는 문화다양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4명, ○ 없다 16명

3.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재해 주세요

○ 성별 (여/15명, 남/4명, 무응답 1명)

○ 연령대 (20대 2명, 30대 5명, 40대 9명, 50대 4명)

■ 과정 1. 마음열기 & 리듬워크숍 (7점 척도/100점 환산)

- 워크숍 참석에 대한 어색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 (6.5/ 92.9점)
- 워크숍 이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6.6/ 94.3점)
- 워크숍에 참여한 단체 혹은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6.3/ 90점)
- 단체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적용하고 싶다. (6.3/ 90점)

이는 ‘마음열기&리듬워크숍’ 프로그램이 시작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고, 참석에 대한 어색함을 없애는 데, 참여한 단체 혹은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싶다는 데 고루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 과정 2. 왜 문화다양성인가?(7점 척도/100점 환산)

- 문화다양성의 관점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6.6/ 94.3점)
- 일곱빛깔, 일곱 개의 감각나누기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6.6/ 94.3점)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진행할 담당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면서 실제 사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마찬가지로,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응답 결과에서 알 수 있다.

■ 과정 3. 만남 1~4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 관점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7점 척도/100점 환산)

- 만남 1. 베프(Bef) ‘청년 김재섭, 마음을 듣다’ (5.6/ 80점)
- 만남 2. 음식공감 ‘음식으로 만나는 이웃나라 문화’ (5.8/ 82.9점)
- 만남 3. 장애, 예술과 만나다 (6.3/ 90점)
- 만남 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5/ 80점)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였다. 총 4번의 만남은 각 주제별로 기획이 되었는데, 그 중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에 대한 평가가 9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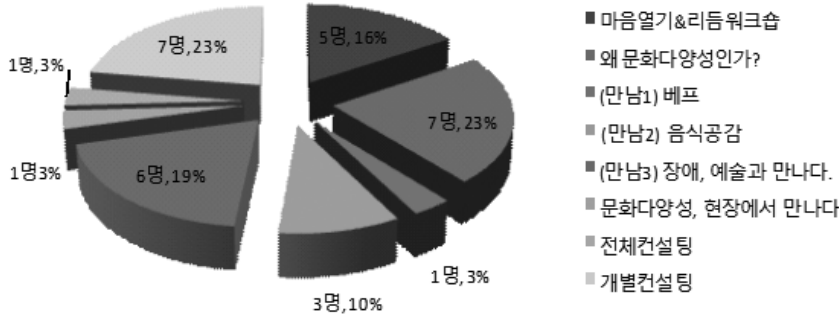
■ 과정 4. 컨설팅(7점 척도/100점 환산)

-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6.3/ 90점)

Part Ⅲ. 워크숍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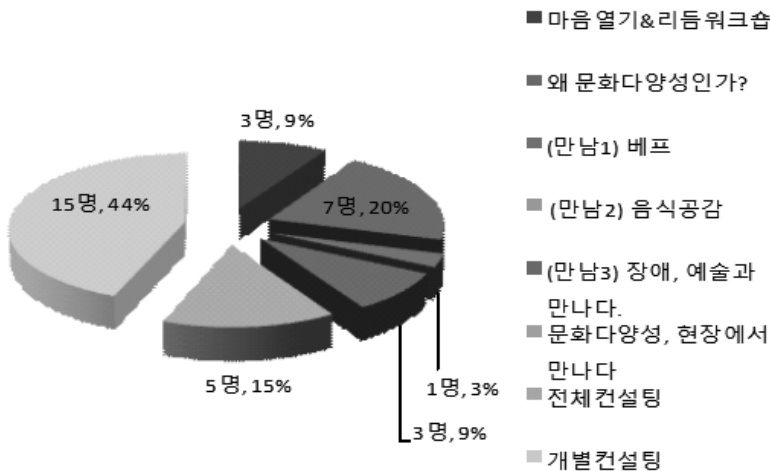
■ 과정 만족도

1. 나는 워크숍 과정 중 ()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응답자 중, ‘왜 문화다양성인가?’와 ‘개별컨설팅’ 강의가 만족스럽다는 경우가 각각 전체의 2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가 19%(6명), ‘마음열기&리듬워크숍’이 16%(5명), ‘(만남2) 음식공감’이 10%(3명), ‘(만남1) 베프’,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3%,1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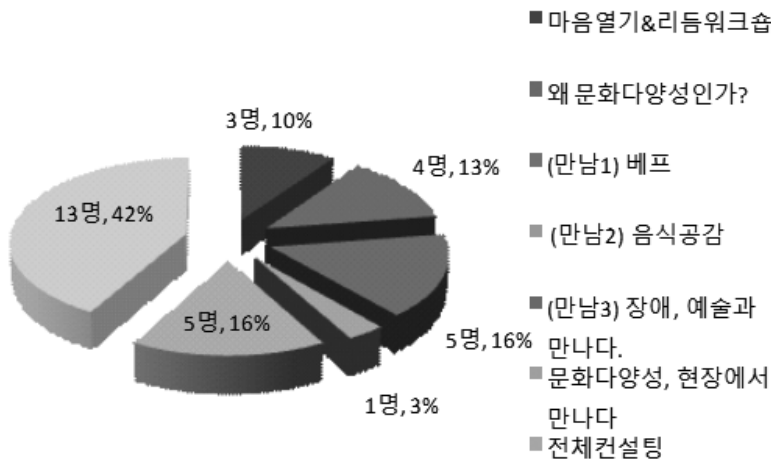
2. 나는 워크숍 과정 중 ()을 통해 기대한 것을 얻었다고 느낀다.



개별컨설팅이 전체의 4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의) 왜 문화다양성인가?’

와 ‘개별컨설팅’이 20%(7명), 전체컨설팅이 15%(5명)을 차지하였다. 사업선정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만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에는 특히,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 그리고 시작프로그램이었던 ‘마음열기&리듬워크숍’이 각각 전체 응답자 중 3명(9%)이 응답하였다.

3. 나는 워크숍 과정 중 ()에서 배운 내용이 사업 실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업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프로그램 역시 컨설팅프로그램이 높은 응답율을 차지하였다. (개별컨설팅-43.2%, 전체컨설팅-16.4%) 그리고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14.7%), ‘(강의) 왜 문화다양성인가?’(13.2%), ‘마음열기 & 리듬워크숍’, ‘(만남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10%) 순이었다.



■ 서비스

1. 워크숍 사전 안내는 프로그램 참여에 적절하였는가? (6.3/90점)
2. 워크숍 공간은 본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하였는가? (6.2/88.6점)
3. 프로그램의 시간 배분은 적절하였는가? (5.6/80점)
4. 워크숍에서 제공된 식사/다과는 적절하였는가? (6.5점/92.9점)

■ 귀하의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7.4 점)

2) 지역 언론 기자단 교육

○ 마음열기

-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들간에 상호 소개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함.
- 교육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 전달함.

○ [강의] 문화다양성, 왜 중요한가? (지역사회 사례를 중심으로)

- 다양한 지역 사례를 통해 왜 문화다양이 중요한지 참여자 스스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어렵게 생각했던 문화다양성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김.
- 미디어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만남] 베프(BeF) 문화다양성과 언론: 이주민의 눈으로 언론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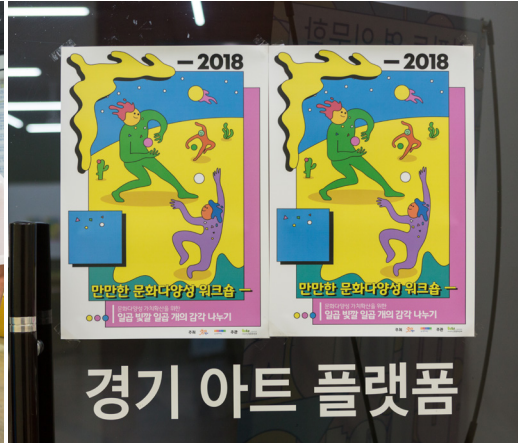
- 이야기 손님과 함께 소통하며 소수자의 시선으로 한국사회를 바라 봄.
- 미디어활동가로 오랜 경험이 있는 강사와의 소통을 통해 이주민을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선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함.
- 미디어가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



6/22 기자단 교육



등록 및 인사



등록 및 인사



등록 및 인사



등록 및 인사



강의 -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강의 -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6/22 기자단 교육



강의 -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강의 - 문화다양성과 한국사회



만남 - 토크쇼[BeF:베스트 프렌드]



만남 - 토크쇼[BeF:베스트 프렌드]



만남 - 토크쇼[BeF:베스트 프렌드]



만남 - 토크쇼[BeF:베스트 프렌드]

3) 교안전달교육

○ 문화다양성의 이해

-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
- 문화다양성을 우리의 일상을 아우르는 가치와 철학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지식 위주의 전달이 아니라, 공감에 바탕을 둬.
- 문화다양성이 훼손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일상적 편견과 차별을 발견함.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과 나의 관계 (강의 시연 교안전달)

-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다수자vs소수자로 구분하며 소수자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 문화다양성을 고려하면서 ‘나’는 속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기도 함.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다양성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과 나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시된 활동지를 통해 팀별 토론을 하며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바르게 수용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과 인권 (강의 시연 교안전달)

- 문화다양성은 결국 일상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고, 이는 사람, 인권과 연계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함.
- 강의 시연을 통해 교안을 전달함. 참여자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교육활동가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안을 살피며 내용과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도록 함.

○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 (강의시연 교안전달)

- 문화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함.
- 차별은 왜 발생하는지 차별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수업 시연-활동을 통해 차별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함.

○ 종합토의 : 문화다양성 한걸음

- 교육을 통해 느낀 바를 서로 나눔.
-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함.

4) 학교 시범교육

○ 교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화다양성은 나랑 무슨 관계일까?>,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인종차별과 다양성 존중> 세가지 주제에 대해 다룸.

○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활용하여 부천, 안양 등 지역에서 총 50회, 1,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함.(자부담분 포함)의 교육을 실시함.

○ 주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문화다양성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함.

○ 지식 위주의 전달 교육이 아니라, 활동과 토론을 병행하며 참여형 수업을 운영함.

○ 참여 학교 및 교육 일정

일시	학교	학급	인원	시간
9월 28일	안양 부림중학교	9학급	225명	1-4교시
10월 31일	부천 상도중학교	3학급	161명	6-7교시
11월 5일	부천 상도중학교	3학급		6-7교시
11월 13일	부천 석천중학교	10학급	266명	1-2교시
11월 23일	부천 부인중학교	4학급	107명	1-4교시
12월 3-4일	부천 도당중학교	10학급	261명	1-4교시
12월 6일	부천 중흥중학교	4학급	103명	1-4교시
12월 17일	부천 내동중학교	7학급	177명	1-4교시
합계			1300명	

9/10 교안전달교육(문화공간디디, 부천)



강의1 - 문화다양성과 나



강의1 - 문화다양성과 나



강의2 - 문화다양성과 인권



강의2 - 문화다양성과 인권



강의3 -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



강의3 -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

11/27 교안전달교육(청년바람지대, 수원)



강의 - 문화다양성과 나



강의 - 문화다양성과 나



강의 - 문화다양성과 인권



강의 - 문화다양성과 인권



활동- 문화다양성과 인권, 고무신 던지기



활동- 문화다양성과 인권, 고무신 던지기

학교 시범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범교육 1



시범교육 2



시범교육 3



시범교육 4



시범교육 5



시범교육 6

3. 제언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안 개발 및 매개자 교육은 그 의미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중요했음.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맞추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추어 교안을 개발하면서, <문화다양성과 나>, <문화다양성과 인권>, <문화다양성과 인종차별>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었음. 3가지 주제를 순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으나, 실제 학교 시범교육을 할 때 현실적으로 세가지 주제(6차시)를 모두 다루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음. 교육은 학교 상황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지만, 3가지 주제를 모두 연결하여 교육할 것을 권장함.

○ ‘일곱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선정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개자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담당자들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 왜 문화다양성인지, 문화다양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만남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지역언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미디어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이 확산되는 등 문화다양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유의할 것이 강조됨. 언론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함. 다만,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자의 수가 적었던 것은 아쉬운 점임.

○ 연구개발을 통해 마련된 교안을 중학교 1학년 학교 시범교육을 통해 확산하는 한편, 관련 교육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여 경기 지역 전체적으로 문화다양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무적임. 교안 전달 교육 프로그램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요자가 많아 여건이 가능했다면 타지역에서 더 실시했으면 좋았을 것임.

○ 향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한다면 사업선정단체 이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교사 및 공무원을 위한 교육, 경기지역 기초문화재단 관계자를 위한 교육을 기대함.

ID			
----	--	--	--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나누기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설문조사

2018년도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 사업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 전반에 대한 것으로 향후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최종 결과자료만 공개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8.6.8.
경기문화재단, 아시아인권문화연대

Part I.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적거나 체크(✓)해주세요.

1. 귀하가 본 지원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① 대표 ② 기획자 ③ 주강사 ④ 보조강사 ※중복체크 가능합니다.
2. 귀하는 문화다양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을 기재해 주세요	성별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Part II. 워크숍 과정 (참석하지 않은 경우, 체크하지 마세요)

■ 과정 1. 마음열기 & 리듬워크숍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워크숍 참석에 대한 어색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2	워크숍 이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3	워크숍에 참여한 단체 혹은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6	7
4	단체가 실행하는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적용하고 싶다.	1	2	3	4	5	6	7

■ 과정 2. 왜 문화다양성인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문화다양성의 관점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2	일곱빛깔, 일곱 개의 감각나누기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 과정 3. 만남 1~4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 관점을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만남1. 베프(Bef) '청년 김재섭, 마음을 듣다'	1	2	3	4	5	6	7
2	만남2. 음식공감 '음식으로 만나는 이웃나라 문화'	1	2	3	4	5	6	7
3	만남 3. 장애, 예술과 만나다	1	2	3	4	5	6	7
4	만남 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1	2	3	4	5	6	7

■ 과정 4. 컨설팅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7

Part III. 워크숍 만족도

■ 과정 만족도

1	나는 워크숍 과정 중 ()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마음열기&리듬워크숍 ② 왜 문화다양성인가? ③ (만남1) 베프 ④ (만남2) 음식공감 ⑤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 ⑥ (만남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⑦ 전체컨설팅 ⑧ 개별컨설팅
2	나는 워크숍 과정 중 ()을 통해 기대한 것을 얻었다고 느낀다. ① 마음열기&리듬워크숍 ② 왜 문화다양성인가? ③ (만남1) 베프 ④ (만남2) 음식공감 ⑤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 ⑥ (만남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⑦ 전체컨설팅 ⑧ 개별컨설팅
3	나는 워크숍 과정 중 ()에서 배운 내용이 사업 실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① 마음열기&리듬워크숍 ② 왜 문화다양성인가? ③ (만남1) 베프 ④ (만남2) 음식공감 ⑤ (만남3) 장애, 예술과 만나다. ⑥ (만남4) 문화다양성, 현장에서 만나다 ⑦ 전체컨설팅 ⑧ 개별컨설팅

■ 서비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워크숍 사전 안내는 프로그램 참여에 적절하였는가?	1	2	3	4	5	6	7
2	워크숍 공간은 본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하였는가?	1	2	3	4	5	6	7
3	프로그램의 시간 배분은 적절하였는가?	1	2	3	4	5	6	7
4	워크숍에서 제공된 식사/다과는 적절하였는가?	1	2	3	4	5	6	7

■ 귀하의 '만만한 문화다양성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 점)

Part IV. 기타의견

■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좋았던 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새로운 경기

모험의 세상



경기도문화재단

주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